

표준시나리오계약서 3종(안) 및 해설서

2014. 12. 26

목 차

I . 표준시나리오계약서 의의 및 기존 계약서와의 차이.....	1
1. 표준시나리오계약서의 목적.....	1
2. 영화산업에서 활용하던 기존 계약서와의 차이.....	2
3. 2012년 개발된 표준시나리오계약서 5종과의 차이.....	8
II .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3종.....	22
1. 표준 영화화 권리 양도계약서.....	23
2. 표준 각본 계약서.....	33
3. 표준 각색 계약서.....	48
III . 표준시나리오계약서 3종 해설서.....	56
1. 영화화 권리 양도계약서 해설.....	57
2. 각본 계약서 해설.....	68
3. 각색 계약서 해설.....	85

기획 및 총괄 : 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부

진행 총괄 : 김현수(정책연구부장)

연구 및 실무

김도학(M&E산업연구소 소장, 연구책임)

강윤희(법무법인 원 변호사)

박희성(정책조사팀장)

김선미(정책연구부)

I. 기존 계약서와의 차이 및 의의

1. 표준시나리오계약서의 목적과 의의

- 계약의 신의성실 원칙 준수 및 열악한 시나리오 작가의 처우 개선.
 - 불명확한 집필 기간과 투자 이후로 이연되는 집필 잔금 등으로 인하여 생활 유지가 어려운 시나리오 작가의 창작 여건 개선 필요.
 - 시나리오 전체 집필 기간과 단계별 작업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양자 간 의무와 계약 기간 명확화 및 이를 통한 계약의 신의성실 확보.
 - 단계별 선 지급 - 후 집필 방식 도입을 통한 집필료 체불 발생가능성 차단.
 - 전체 집필료 기준 1단계 지급 집필 금액의 하한선 설정을 통한 작가의 생활 안정성 확보.

- 창작자이자 저작권자로서 영화 시나리오 작가의 권리 보호를 통해 역량 있는 시나리오 작가군의 확대 및 작가로서의 자긍심 강화.
 - 유능한 시나리오작가의 감독진출 및 방송진출에 따른 시나리오 작가의 이탈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투명한 전망에 따른 신인 작가의 유입 축소로 시나리오 작가분야 공동화 현상 심화.
 - 방송 작가들은 약정된 방영 회수 이후 해당 프로그램이 방영이 될 경우 집필에 참여한 프로그램 방영 대가로 일정금액을 지속적으로 지급받고 있음.
 - 방송 작가와 동일한 방식은 아니지만, 집필에 참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의 상영 및 부가관련 매출로 인해 이익이 발생할 경우 창작자이자 저작권자로서 시나리오 작가들이 관련된 수익을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익을 분배 받을 수 있는 수익 지분 권한과 정산 및 지급방식 명시.
 - 저작권자로서의 시나리오 작가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시나리오 작가들의 자긍심 및 위상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역량 있는 작가군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공정한 계약을 통한 제작사와 작가 간의 권리와 의무의 조화 및 전문성 강화.
 - 작가가 집필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만이 아니라 2차 저작물 권리도 무조건 양도되던 관행을 개선하여, 작가에게 유보된 2차 저작물 권리는 특약과 별도의 대가 지불을 통해 제작사가 이용허락 또는 양도받도록 개선.
 - 단계별로 계약 지속 여부를 양 주체가 동등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계

별 또는 단계별 계약 중단 주체에 따라 보장받는 권리 및 상대에 대한 의무가 달라지도록 하여 제작사와 작가 간의 권리와 의무의 조화를 모색하였음.

-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를 발생시킨 주체에 따라 저작권재산권 권리의 보유 주체와 상대방의 의무도 상이하게 제시함으로써 기존 시나리오 계약서와 달리 제작사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작가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였음.

2. 영화산업에서 활용하던 기존 계약서와의 차이

(1) 시나리오 집필 기간의 명시

- 영화산업의 기존 계약서(이하 기존 계약서)의 경우 집필 단계 구분이나 기간 없이 시나리오가 완성될 때까지로 설정하는 통계약 방식이 일반적이었음.
 - 모든 용역 완료시 종료, 혹은 최종 기획개발 결과물 제출 시점, 3년을 초과하지 않고 크랭크인 이전까지 기간 등 집필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하지 않고 있음
 - 각색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을 명시하는 하는 사례가 있음.
 - 시나리오 집필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작가에게 작품 활동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제약 혹은 구속하거나, 다른 작품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작가의 기본권을 침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 2014년에 개발한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의 경우 전체 시나리오 집필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 단계별 기간을 명시하였음.
 - 전체 시나리오 집필(또는 각색) 기간을 사전에 합의하여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연장이 필요가 있을 경우 약정한 기간의 20%를 넘기지 않도록 단서 조항으로 제시.
 - 각본계약서의 경우 트리트먼트, 초고, 2고, 3고 등으로, 각색계약서의 경우 1고, 2고 등으로 각 단계별 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였음.
 - 작가의 시나리오 집필(또는 각색)의 전체 기간과 단계별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계약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가의 업무집중도 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2) 시나리오 집필 대가의 지급방식

- 기존 계약서의 지급방식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3회로 지급.

-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선지급 형태로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중도금은 대체로 집필완료 후에 지급하며, 잔금은 투자 확정 이후로 미루고 있음.
- 작가가 시나리오 집필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지급을 투자 확정 이후로 미루는 것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작가에게 기획개발의 리스크를 온전히 전가하는 행위로 작가의 창작 여건을 악화시키는 원인이기도 함.

○ 표준계약서에서는 단계별 선지급 후집필 방식을 도입.

- <영화화 권리 양도계약서>는 각본료 총액 일시 지불 원칙.
- <각본 계약서>는 전체 시나리오 집필 대가의 총액을 정하고, 지급방식은 트리트먼트, 시나리오 초고, 2고, 3고 등 각 단계별로 선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단계 집필 때 전체 집필료 기준으로 2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한선 설정.
- 각색 1고와 2고 등 2단계로 계약이 진행되는 <각색 계약서>는 1고 집필료를 전체 각색료의 50%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한선 설정.
- 각본 시나리오 1고 또는 2고, 각색 1고에서 시나리오 집필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잔금을 지불하도록 규정.
- 단계별 선지불 원칙과 더불어 1고 또는 2고 단계에서 완성으로 판단할 경우 잔금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작가 시나리오 집필료의 체불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음.

(3) 계약 위반 없는 계약 중단에 대한 처리 방안(“각본 계약서”)

○ 각본 계약의 경우 기존 계약서에는 계약 위반 없이 계약이 중단될 경우와 관련된 별도의 일반화된 규정 없음.

- 관련 규정은 없으나, 계약 위반 사항이 없는데 계약이 중단된 경우 저작권자는 제작사에 귀속되고, 작가에게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일반적임.
- 계약 위반 없는 계약 중단의 경우 잔금,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제작사와 작가 간의 분쟁발생이 발생할 수 있음.

○ 표준계약서에서는 단계별 계약 중단 시 저작권, 잔금, 크레딧 처리 방안 제시.

- 트리트먼트 수령 전후 계약 중단시 저작권은 원안 작성자에게 귀속. 단 작가 원안으로 저작권을 작가 본인이 보유하기 위해서는 제작사에게 기 수령한 집필료와 관련된 일정 금액(집필료와 약정한 이자 금액 또는 집필료 2배)을 배상해야 함.
- 트리트먼트 수령 전후에 계약이 중단되는 경우 제작사는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집필료(잔금)를 지급할 의무는 없음.

- 시나리오 초고 수령 후 계약 중단 시 2차 저작물 권리(작가에게 유보)를 제외한 저작권은 제작사 귀속.
- 시나리오 초고 수령 후 제작사가 중단을 결정할 경우 제작사는 작가에게 크레딧 및 수익 지분을 제공해야 하며, 최초 투자금이 제작사에 입금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작가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 시나리오 초고 수령 후 작가가 중단을 결정할 경우 저작권이 제작사에게 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작가가 기 수령한 집필료의 반환 등 제작사에 대한 배상은 없으나, 제작사도 작가에게 약정한 잔금, 크레딧, 수익지분 등을 제공할 의무는 없도록 하였음.
- 기존 계약과 달리 계약 중단에 따른 작가의 권리를 일정 수준 확보 또는 보호하면서도 단계별로 소요된 제작사의 경비와 노력 등을 함께 고려하여 계약 중단과 관련된 조항의 이행 가능성을 제고하였으며, 분쟁발생 가능성의 최소화를 모색하였음.

(4) 창작자로서 작가의 수익분배 권리

- 기존 계약서에는 작가의 수익 지분 개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단, 제작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인센티브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음.
 - 방송 작가의 경우 본인이 집필한 프로그램이 약정한 방영 회수 이후에 계속 방영될 경우 저작권자로서의 방영대가로 관련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반하여, 영화 시나리오 작가는 집필료(또는 일부 제작사가 제공하는 상영 수익과 관련된 인센티브) 이외에 관련된 수입이 없어, 상대적으로 방송작가에 비하여 저작권자로서의 위상과 자긍심이 적으며, 이에 따라 방송작가로 전직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 표준계약서에서는 작가가 집필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가 이익이 발생할 경우 창작자이자 저작권자로서 시나리오 작가도 관련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수익지분 개념을 도입하였음.
 - 작가가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한 대가로 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사전에 약정하여 받도록 하였음(영화화 권리 양도, 각본).
 - 작가에게 제공되는 약정한 수익지분이 지속적으로 성실히 지급될 수 있도록 표준 투자계약서와 연동하여 정산기일 및 지급기일 등을 제시하였음.
 - 각색 계약의 경우에는 작가가 계약과 관련된 각색 용역 제공을 완료하였을 경우 제작사와 작가 간의 서면 합의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시나리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작가도 일정 수준 분담할 뿐만 아니라 원천적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집필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

된 영화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창작자들에게 수익배분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로서의 작가의 위상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한 것임.

(5) 영화화 권리 귀속 기간

○ 기존 계약서의 경우 영화화 권리가 제작사나 투자사에게 영구히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임.

- 시나리오도 다른 문화상품과 마찬가지로 관객을 포함한 대중에게 소구될 수 있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음에도 일정 기간 내에 실제 영화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작가로서는 시나리오 자체의 공표 기회가 사라지고 수익 창출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영화화 권리를 영구히 양도하는 것은 저작자로서의 작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음.

○ 표준계약서 중 <영화화 권리 양도계약서>와 작가가 원안 작성자인 <각본 계약서>의 경우 제작사의 영화화 권리 귀속 기간을 5년 이내로 사전에 약정하도록 하였음.

- 영상제작자의 독점적 이용기간을 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99조 제2항(“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의 “5년”을 준용하여 기준으로 삼음
- 제작사와 작가가 계약 만료 1개월 이전에 연장 기간 및 기간 연장에 대한 대가와 관련된 별도의 서면합의로 영화화 권리 양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원안 작성자가 제작사인 각본 계약서(소설이나 만화 등 원저작물을 제작사가 구입한 경우 포함) 및 각색 계약서의 경우 제작사(또는 투자사)에 영화화 권리를 영구히 귀속되도록 명시하였음.
- 작가 본인만의 노력과 경비로 집필한 시나리오의 영화화 양도 계약이나 작가 원안의 시나리오 각본 계약의 경우 제작사의 영화화 권리 양도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계약 기간 이후 재계약 과정에서의 제작사의 영화화 능력 및 가능성 평가, 다른 제작사와의 계약 모색 등 저작권자로서 작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6) 저작권 권리 귀속

○ 기존 계약서에는 영화로부터 발생 및 파생가능한 직접, 간접적인 모든 지적재산권

을 제작사에게 유일하고 독점적으로 부여.

-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제시한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의 입법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표준계약서 중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서>와 <각본 계약서>의 경우 2차 저작물 권리는 작가에게 유보되도록 하였음.

- 2차 저작물 권리를 제작사가 행사하기 위해서는 작가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작가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불한 후 필요한 권리를 양도 또는 이용허락 받도록 제시하였음.
- 각본 계약 중 소설, 웹툰 등 원저작물을 원안으로 한 경우에는 제작사와 원저작물 권리자 간의 관련 계약 내용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와 계약과 작가와의 계약 내용이 충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음.
- 작가가 집필한 시나리오와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의 주요 인물묘사, 플롯의 전개, 주요 시퀀스의 사건, 씬 별 대사 및 지문 등이 다른 새로운 창작물이라는 점을 제작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이나 대가 지불 없이도 제작사가 2차 저작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으로 규정하였음.
-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서>의 경우 영화화 권리 양도 기간이라도 작가는 2차 저작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작사에 양도한 시나리오의 한국어로 된 영화화 권리 이외 작가의 2차 저작물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작가와 별도의 서면 합의와 대가 지불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여 소설, 만화 등 다른 원저작물 저작권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시나리오 작가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음.

(7) 크레딧 명기

○ 기존 계약서의 경우 작가는 크레딧을 명기할 권리를 가지며, 크레딧과 관련된 전반적인 최종 결정권은 제작사에 있음.

- 크레딧의 크기, 위치, 표시방법은 영화계의 관례에 준하며, 최종 결정권은 제작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작가의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크레딧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작가의 인격적 정신적 권리로 작가로서의 자긍심, 경력관리,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자의적 해석에 의한 표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표준계약서에서도 작가는 크레딧을 명기할 권리를 가지나, 크레딧의 크기, 위치, 표시방법 등을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
- 기존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크레딧 표기와 관련된 최종결정권은 제작사가 가지나, 상호 협의 과정을 거쳐 작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음.

[표 1] 영화산업 활용 기존 계약서와 2014년 표준계약서의 차이 요약

	영화산업 활용 기존 계약서		2014년 표준계약서
집필 기간	•통계약 방식으로 집필기간에 대한 명시 없음.	⇒	•전체 시나리오 집필 기간만이 아니라 각 단계별[(각본: 트리트먼트, 초고, 2고, 3고), (각색: 1고, 2고)] 기간을 명시하도록 제시.
집필 대가 지급방식	•계약금, 중도금, 잔금 3회 지급. •잔금지급은 투자 확정 이후로 미루고 있음.	⇒	•단계별 선지불 방식 적용. 즉, 선지급 후집필 방식. •<영화화 권리 양도계약서>는 각 본료 총액 일시 지불 원칙. •전체 집필료 기준 1단계 집필료(각본 : 20%이상, 각색 : 50% 이상) 하한선 설정.
계약 중단 시 처리 방안 (각본 계약서)	•계약 위반 없이 계약이 중단될 경우와 관련된 별도의 일반화된 규정 없음.	⇒	•단계별 계약 중단시 저작재산권, 잔금, 크레딧 처리 방안 제시.
창작자로서 작가의 수익분배 권리	•저작권자로서 작가의 수익 지분 개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저작권자로서 작가의 수익 지분 권리 명확화(영화화 권리양도 계약서, 각본계약서). •각색계약서의 경우 작가에게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시.
영화화 권리 귀속기간	•제작사 및 투자사의 영구 귀속이 일반적.	⇒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서> 및 작가 원안 <각본계약서>의 경우 기본적인 영화화 권리 양도 기간은 5년으로 설정.
저작권 권리 귀속	•영화와 관련된 모든 권리 제작사 및 투자사 영구 귀속.	⇒	•2차 저작물 권리의 작가 유보, 특약과 별도의 대가의 지불을 통해 제작사에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되도록 규정.
크레딧	•별도의 증빙 없이 크레딧의 병기 등에 대한 권리 제작사 결정.	⇒	•시나리오 변경 내용 및 다른 작가와의 계약 등을 제작사가 증빙할 경우 크레딧 병기 가능.

- 작가 이외 크레딧을 다른 작가와 병기해야 할 경우 제작사가 다른 작가와 체결한 각본계약서 사본만이 아니라, 병기대상자인 다른 작가가 기여한 창작적 표현의 분량 및 내용 등에 대한 서면 입증 과정을 통해 병기 여부 및 병기 순서를 결정하도록 하였음.
- 이와 같이 크레딧 표기와 관련된 사항의 제작사와 작가의 상호 협의 과정과 병기와 관련된 제작사의 입증과정을 함으로써 작가의 저작권권을 보호.

3. 2012년 개발된 표준시나리오계약서 5종과의 차이

(1) 전체 구조 및 공통 사항 차이

① 전체 시나리오 계약서 구조

- 2012년에 개발한 표준 시나리오 계약서(이하 2012년 개발계약서) 중 <각본계약서>는 원안에 따른 옵션별로 3종으로 세분화하였음.
 - 원안 작성자의 창작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원저작물의 각본 계약, 제작사 컨셉의 각본 계약, 작가 컨셉의 각본 계약 등 3종으로 분류하였음.
 - 원저작물을 원안으로 한 각본 계약의 경우 작가에게 창작자로서 재산권 보장 측면에 제공되어야 하는 수익 지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대신에 제작사의 시혜적 측면의 인센티브 개념을 적용하였음¹⁾.
 - 원안 옵션별로 계약 중단 시 저작재산권 귀속 주체, 수익 배분 대상 여부 등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창작물로서의 원안에 대한 용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2014년 표준 시나리오 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중 <각본계약서>는 원안 작성자 옵션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통일하여 제시.
 - 시나리오 작가 단독으로 개발한 시나리오의 영화화 권리 매매 형태의 계약 내용을 담은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서>, 원안에서 영화 촬영 및 제작이 가능한 형태의 시나리오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작사와 작가의 공유하는 리스크와 투입가치를 고

1) 수익지분은 권리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이익 공유로 관련 재산권 및 권리가 존속될 때까지 수익이 발생할 경우 약정에 따라 계속 권리자에게 지분율에 따라 배분되는데 반하여, 인센티브는 회사가 이익이 발생할 때 일시적으로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시혜적 비용 성격을 가짐. 이처럼 이익이 발생할 때 제공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수익지분이 권리에 대한 대가라고 한다면 인센티브는 일종의 경영자의 시혜적 보상임.

려하여 제시한 <각본계약서>, 일정 수준 완성된 시나리오의 부분 수정을 위해 제작사와 각색 작가와 계약 내용을 담은 <각색계약서> 등 투입되는 작가와 제작사의 리스크 분담 정도 및 가치 차이를 반영하여 3종의 시나리오 계약서로 제시.

- 2012년에 원안의 창작성에만 중점을 두고 원안 옵션별로 3종으로 제시된 <각본계약서>는 원안 작성자의 창작적 가치만이 아니라 원안에서 시나리오 개발 과정의 작가의 창작적 가치 및 기여도를 함께 반영하도록 1종으로 통일하였음. 대신에 원안 작성자의 기여도는 계약 중단 시 저작재산권 귀속, 영화화 권리 귀속 기간 등 관련 조항의 단서나 특별 조항으로 반영하였음.
- 핵심 줄거리, 기획의도 및 주제가 제시된 원안에서 플롯의 전개, 주요 등장인물 묘사, 인물 간 관계와 갈등 구조, 주요 시퀀스의 사건과 시공간 배경 등이 썬 단위의 대사와 지문에 녹아들어 영화 제작 및 촬영이 가능할 정도의 시나리오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작가의 창작성과 노력의 가치가 원안을 창작하는 것보다 적다고 볼 수 없어, 원안 작성자와 마찬가지로 작가의 저작재산권을 보장하도록 하였음.
- 용어 정의에 계약 중단 시 저작재산권 귀속 주체, 수익 배분, 영화화 권리 귀속 기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원안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였음.

② 계약과 관련된 주요 용어의 정의

- 2012년 개발 계약서에 있어서 계약과 관련된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을 용어 정의와 관련된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고, 시나리오의 집필, 권리 귀속 등 계약 내용에 함께 제시하였음.
- 트리트먼트, 타매체권, 1차적 지적재산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영화화 허락 및 각본 계약서의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을 통합하여 별도의 조항으로 정리하지 않고 해당 용어가 나오는 계약 조항에 함께 제시하였음.
- 타매체권, 1차적 지적재산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용어와 영화산업 내의 다른 계약서나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의 용어가 달라, 계약 당사자 간 또는 투자계약서를 포함한 연관 계약서와의 연계 과정에서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집필 단계 구분이나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안, 시나리오, 순이익, 제작사 몫의 수익, 메인투자사 등에 대한 용어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의 명확성 부족과 기준의 모호성으로 분쟁 발생 소지가 있음.
- 표준계약서에서는 계약과 관련된 주요 용어를 용어의 정의(제3조) 조항으로 별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 2012년 개발 계약서에 제시된 트리트먼트 이외 원안, 시나리오, 기획개발 등 집필 단계의 구분 및 계약 중단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설명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였음.
- 수익배분 및 정산 등과 관련된 메인투자사, 수익 지분(율), 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을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순이익에 대한 정의는 표준투자계약서상의 용어정의를 인용하여 별첨으로 제시하였음.
- 타매체권, 2차 저작물 작성권 등을 투자계약서 등 업계 내의 다른 계약서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2차 저작물 권리로 통일하였음.
- 업계 내의 다른 계약서 등과 일관성이 있는 용어 정의를 통해 다른 계약과의 연계상의 혼란을 최소화하였으며,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과 기준 제시를 통해 계약내용 해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가능성을 최소화하였음.

③ 전체 집필 기간 연장 범위

- 2012년에 개발한 각본계약서의 경우 전체 집필(또는 각색 작업) 기간과 단계별 기간을 제작사와 작가가 상호 합의하에 정하도록 하였으나, 기간 연장 범위에 대한 사항은 제시하지 않았음.
- 제작사나 작가의 판단으로 집필(또는 각색 작업)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다른 작품의 집필 계약 의뢰에 대한 가부 및 계약가능시기를 결정해야 하는 작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집필료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연장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작가의 권리 보호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설정하지 않았음.
- 표준계약서도 2012년 개발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전체 집필(또는 각색 작업) 기간과 단계별 기간을 상호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장 가능범위를 전체 기간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였음.
- 작가가 집필 기간 연장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면서도 작가의 다른 작품과 관련된 의사결정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간 연장 가능 범위를 20%로 제한하였음.

④ 수익배분 관련 사항

- 2012년에 개발한 계약서에서 수익배분 및 인센티브는 수익발생시 1회의 정산 및 지급 형태로 3가지 기준의 동일한 방식으로 제시되었음.
- 수익배분 및 인센티브 기준은 제작사의 최종 순이익의 일정 비율, 손익분기점 기준 전국 관객 50만 명당 일정 금액, 특정 기준 시점에 약정한 고정 금액 등 3가지

기준 중 선택하는 형태의 1회 기준이며, 제작사의 정산서 제공 의무도 1차 정산과 관련된 규정만 제시되어 1회에 한하여 작가에게 수익 분배나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해석될 소지가 큼. 이에 따라 방송작가들처럼 지속적으로 집필한 작품과 관련된 수익이 시나리오 작가들에게도 분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2012년 계약서 개발 당시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편임.

- 계약할 때 수익분배비율이나 금액을 계약 단계에 약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란으로 처리하거나 0%(또는 0원)으로 약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않음.
- 제작사 컨셉 및 작가 컨셉의 각본 계약과 달리, 원저작물을 원안으로 한 각본계약의 경우 제작사의 웹툰이나 소설 등 원 저작물의 영화화 권리 구매에 따른 비용 지출을 이유로 원 저작물을 원안으로 한 각본 계약의 경우 작가에게 수익분배권리(수익 지분)가 아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²⁾.

○ 표준계약서의 경우 투자계약서와 연동하여 지속적으로 시나리오 작가에게 수익 지분이 제공되도록 하였음.

-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작가가 시나리오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대가로 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의 일정 비율을 계약 당시 약정하는 형태로 제시하였으며, 투자계약서의 계약 내용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작가도 수익분배를 받도록 하였음.
- 또한 단서조항으로 작가에게 지급되는 제작사 몫의 수익의 일정 비율을 0%로 정하거나 공란으로 두지 못하도록 하여 제작사가 작가에게 제공해야 할 수익분배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³⁾, 폐업 등 제작사 사유로 작가에게 수익분배 정산 및 지급 의무를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메인투자사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제작사 의무를 규정하였음.
- 각색 계약의 경우 작가와 제작사가 별도의 서면합의로 인센티브를 작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소설이나 웹툰을 원안으로 하더라도 시나리오로 변화되는 과정에서의 작가의 창작성이 적지 않게 요구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작의 상품성이나 장점을 살리면서도 차별화된 스토리나 주인공의 캐릭터 변화 등을 모색하는 것이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쓰는 것보다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임. 일부 영화를 제외하고 소설이나 웹툰 등 원작 있는 영화의 수익률이나 수익발생가능성이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영화화한 작품보다 높지 않은 점이나 제작사나 투자사가 영화화를 위해 구매한 원작의 영화화 비율도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작이 있는 작품의 시나리오 집필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본 작가의 창작성이 영화화 가능성이나 수익에 크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음.

3)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 작가 원안 각본 계약, 제작사 원안(원저작물 포함)인 각본 계약 등 3가지 계약에 있어 원안 작성자의 기여도나 창작성이 작가의 수익분배권리(수익 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기준을 하한선 형태로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작가와 제작사 간의 사적 계약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수용하여 본 표준계약서에서는 0%로 정하거나 공란으로 두지 못하게 하는 선에서 관련 단서조항을 조정하였음. 원안 작성자의 창작성이나 기여도를 반영하는 풍토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본 표준계약서에서 제시하지 않았지만, 제작사와 작가 상호 간에 3가지 계약 형태별로 작가에게 제공되는 수익분배비율의 기준을 차별화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이상과 같이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이나 각본 계약의 경우 작가들이 집필한 작품에서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지속적으로 수익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작사의 정산 및 수익분배 지급 의무를 투자계약서와 연동하여 제시함으로써 저작권자로서 작가의 권리를 강화하였음.

⑤ 크레딧 관련 조항

- 2012년 개발 계약서에서 다른 작가와 크레딧 병기는 제작사가 병기대상자와 각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하면 병기 여부나 순서를 결정.
- 크레딧의 크기, 위치, 표시 방법을 제작사와 작가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다른 작가와 병기할 경우 작가를 최전 단에 명기하도록 규정.
- 표준계약서에서 다른 작가와 크레딧 병기는 제작사가 병기대상자와의 각본 계약 체결 사실만이 아니라 작품의 분량 및 내용 측면에서 다른 작가의 기여도를 입증할 경우에 병기 여부나 순서를 결정하도록 수정.
- 크레딧 크기, 위치, 표시방법은 작가와 제작사 간에 상호협의 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 제작사가 최종 결정하도록 하였음.
- 작가와 병기대상 다른 작가와의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협의하여 병기 여부나 순서를 결정하도록 한 점은 2012년과 유사하나, 최종결정권은 제작사에게 주는 대신에 입증에 있어서 병기 대상 다른 작가와의 계약 체결 사실만이 아니라 시나리오에 있어서의 분량 및 내용 등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제작사에게 최종결정권을 주는 실태 및 관행 등을 반영하여 적용가능성을 제고하였음.

⑥ 비밀유지 의무

- 2012년 개발 계약서에서 비밀유지 조항은 제작사와 작가가 상호 간의 영업비밀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일반적인 비밀 유지의무만을 제시.
- 작가의 2차 저작물 작성 권리를 권리 귀속 관련 조항에서 제한하고 있어 시나리오 관련 비밀 유지 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없었음.
- 표준계약서에서는 일반적인 계약 내용 및 상호간의 영업비밀에 관련된 비밀유지 의무 조항 이외에도 시나리오의 대중적인 공개를 제한하는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규정하였음.

- 소설이나 웹툰 등 다른 원작과 마찬가지로 작가의 2차 저작물 작성 권리를 영화화 이전에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서> 상의 관련 조항만이 아니라 각본계약서도 작가의 2차 저작물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나리오의 대중적인 공개를 제한하는 비밀유지 조항을 규정하였음.
- 제작사 동의를 전제로(제8조 (4)항) 작가가 집필한 시나리오의 TV방송물이나 출판 등 2차 저작물로 작성·제작하기 위해 출판사나 방송사(또는 드라마 제작사) 등에게 제한된 범위에서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작가의 관련 권리를 보장하는 대신에, 시나리오가 대중적으로 공개되어 영화의 제작투자나 흥행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시나리오의 일반 대중에 공개되지 않도록 관련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규정하였음.

⑦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조치

- 2012년 개발 계약서 중 각본계약서와 각색계약서에서 작가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해지가 되었을 때, 각 단계별 집필 또는 각색 작업 대가의 2배를 반환하도록 하였음.
- 작가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작사에게 각 단계별 집필 또는 각색 작업 대가의 2배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별도의 손해 배상을 제작사가 청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작가에게 지나친 부담임.

[표 2] 2012년 개발 계약서와 2014년 표준계약서의 공통 사항 차이 요약

	2012년 개발 계약서	2014년 표준 계약서
전체 계약서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화 허락 계약서>, 옵션별 <각본계약서> 3종, <각색계약서> 등 5종으로 구분. • 원안의 창작성에 중점을 두어 원안의 저작권 옵션에 따라 원 저작물 각본, 제작사 컨셉, 작가 컨셉 등 3종의 각본계약서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화 권리 양도계약서>, <각본계약서>, <각색계약서> 등 3종으로 구분. • 원안의 창작성과 각본 집필의 창작성을 함께 고려하며, 원안 옵션별 내용은 단서 조항 및 특별조항으로 처리하여 각본계약서 1종으로 통일.

	2012년 개발 계약서	2014년 표준 계약서
용어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정의에 대한 별도의 조항 구분 없이 관련 내용이 제시될 때마다 관련 조항에 명기. • 2차 저작물 권리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타매체권으로 분류하여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정의가 필요한 용어를 별도의 조(3조)로 구분하여 정리. • 2차 저작물 권리로 통일(영화산업의 다른 표준계약서들과 일관성 유지).
집필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집필기간 연장 범위 제한에 대한 내용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정한 전체 집필 기간의 20%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범위 제한.
수익배분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배분 및 인센티브 기준을 3가지 형태(제작사 순이익의 일정 비율, 전국관객 50만 명당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 특정 기준 시점에 일정 금액)에서 선택하도록 제시. • 원저작물을 원안으로 한 각본계약과 각색 계약의 경우 작가에게 인센티브 제공. • 1차 정산 관련 내용만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이익 발생시 제작사 몫 수익지분율의 일정 비율을 작가의 수익지분으로 제시. • 작가에게 제공되는 수익지분을 0%로 정하거나 공란으로 두지 못하도록 단서 조항으로 명시. • 각색계약만 인센티브 지급되고 영화화 양도나 각본계약의 경우 작가에게 수익 지분 제공. • 표준투자계약서와 연동하여 지급 시기 등을 세분화하여 제시.
크레딧 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기대상 다른 작가와의 계약체결 사실 입증만으로 크레딧 병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 사실 이외 병기대상자의 창작적 표현 분량 및 내용 등 시나리오 기여도에 대한 제작사의 입증을 통해 작가와 협의하여 병기여부 및 순서를 결정하도록 규정.
비밀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만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 이외, 작가의 2차 저작물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일반 대중에게 시나리오 내용이 알려지지 않도록 관련 비밀유지 조항 추가.
계약 해제·해지 조치(각본/각색 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각 단계별 집필 대가의 2배를 제작사에게 반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기 수령한 집필료와 약정한 이율 계산 금액 반환.

- 표준계약서에서는 작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때 제작사에게 각 단계별 집필 또는 각색 작업 대가와 해당 대가의 약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음.
-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가져온 귀책 당사자는 저작권산을 상대방에게 모두 넘겨주게 될 뿐만 아니라, 계약이 유지되고 본인의 의무를 다할 경우 작가가 받을 수 있는 각종 권리도 작가 귀책사유로 계약해지될 경우 포기해야 하는 점도 고려하여 제작사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액을 받은 집필(또는 각색 작업) 대가와 받은 집필 대가에 약정한 이자를 곱한 금액을 제작사에 반환하도록 현실화하였음.

(2) 작가 완성 시나리오의 영화화 계약 관련 변화 내용

① 이용허락 계약에서 권리 양도 계약으로 전환

- 작가가 완성한 시나리오의 영화화를 위해 제작사에 판매하는 계약을 2012년 개발 계약서에서는 <영화화 허락 계약서>로 제시하였음.
- 이용허락에 따른 권리나 양도에 따른 권리 모두 채권 계약이나, 이용허락 계약은 이용허락은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도 없어, 제3자에 대해 권리자로서 대항력이 제한되어 소송 등을 통해서 권리 확인을 해야하므로 법률관계의 안정성이 낮음.
- 즉 이용허락 계약은 창작자가 이중 계약을 할 경우 제작사의 제3자에 대한 대항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제작자는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해외 수출에 한계가 발생될 수 있음.
- 표준계약서에서는 작가의 완성된 시나리오의 영화를 위한 판매 계약을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서>로 수정하였음.
- 권리 양도는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이 가능하여 권리 등록을 할 경우 해당 권리자로서 제작사가 제3자로부터 권리를 방어할 수 있으며, 시나리오를 기초로 제작한 영화의 해외수출 과정에서 독점적인 권리자로서 한계가 없음.
-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으로 수정하면서 추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제작사가 저작권 양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권리 양도 등록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가가 제공하도록 명시하였음.
- 제작사의 저작권 등록 시 영화화를 위해 작가로부터 양도되는 권리 범위를 특약사항으로 함께 등록하도록 하였음.

② 영화화 권리 양도(허락) 범위

- 2012년 개발 계약서에서는 제작사가 작가의 시나리오를 영화화 하는데 있어 기간만 범위를 한정하였음.
 - 제작사의 영화화 허락 기간을 작가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아니라 5년으로 고정하여 제시하였음.
 -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제작할 수 있는 영화화 기간 이외 언어나 지역적 범위 등은 제시하지 않았음.
- 표준계약서에서 작가에게 양도되는 권리는 영화화 기간 이외에도 영화 대사의 주요 언어에 대한 범위도 작가와 제작사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음.
 - 연기자나 감독 이외 다른 영화인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가가 단독으로 완성한 시나리오의 해외 판매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다른 언어의 부분적 사용 및 해외 수출을 위한 더빙이나 자막 처리 이외에 영화의 주요 언어를 상호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였음.
 - 영화화 권리 양도 기간도 제작사와 작가가 상호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대신에, 저작권법 제99조 제2항을 고려하여 단서 조항으로 기간 범위를 5년으로 제한하였음.
 - 이처럼 영화화 양도 기간을 제작사와 작가 간에 합의하여 정할 경우 제작사는 양도 기간을 5년이 아닌 3년 등 짧은 기간으로 계약하는 대신에 시나리오의 영화화 양도 대가에 따라 지불 금액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임. 반면에 작가는 제작사에게 양도한 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로 줄여서 계약함에 따라 양도 기간 이후 시나리오의 영화화를 위한 다른 제작사와의 계약 기회 등을 모색할 수 있어 작가가 완성한 시나리오의 영화화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

③ 영화화 권리 이외 작가의 권리 행사

- 2012년에 개발한 영화화 허락 계약서에서는 작가가 출판, TV방송물의 제작 및 방영, 공연 등의 2차 저작물 권리(“타 매체 권리”로 표현)를 영화화 기간에도 행사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2차 저작물 권리가 영화보다 우선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음.
 - 시나리오가 영화 제작을 전제로 집필되는 창작물이라는 점과 영화와 다른 콘텐츠 간의 OSMU(One-Source Multi-Use) 관계에 있어 영화보다 TV 드라마 방영 등을 통해 먼저 대중들에게 공개될 경우 영화 제작투자 가능성이나 수익률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영화보다 우선할 수 없도록 하였음.

- 만화(또는 웹툰)나 소설 등의 다른 창작물의 영화화를 위한 구매의 경우 작가의 2차 저작물 권리를 영화보다 우선할 수 없도록 제한하지는 않음.
- 다른 창작물의 영화화 구매 계약과 달리 작가가 완성한 시나리오의 구매 계약에 있어 작가의 2차 저작물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시나리오 작가에게 있어 차별적 대우로 인식될 수 있음.

○ 표준계약서에서는 제작사가 작가의 2차 저작물 권리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면 합의 및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였음.

- 영화화 권리 양도 기간 중 작가의 2차 저작물 권리 행사와 관련된 조항을 소설이나 만화 등 다른 창작물의 영화화 구매 계약과 관련 내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음.
- 다만, 시나리오를 토대로 한 2차 저작물의 대중 공개가 영화보다 우선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작사가 정당한 절차(작가와의 별도의 서면 합의와 대가 지불)를 통해 홀드백 기간을 정하거나 관련 권리를 양도받을 수 있도록 제시하였음.

[표 3] 2012년 개발 영화화 계약서와 2014년 표준 영화화 계약서의 차이 요약

	2012년 개발 계약서		2014년 표준 계약서
영화화 권리 이전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화 허락 계약서>로 이용 허락 형태 계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에 대한 제작사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리 양도 형태로 계약(<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서>). • 제작사의 저작권 양도 등록을 위한 작가의 관련서류 제공 의무 명시.
영화화 권리 이전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화 이용허락 계약기간만 설정(고정적으로 기본 5년) • 추가 계약을 통한 기간 연장 가능, 제작사 우선협상권 부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화 기간, 언어, 영화화 기간 내 주 촬영을 한 경우 기간만료가 되더라도 제작사의 영화화 지속 등 양도되는 권리범위 명확화. • 영화화 기간 5년 이내에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괄호로 제시. • 추가 계약을 통해 기간 연장이 가능하나 우선협상권 관련 내용은 없음.
영화화 권리 이외 작가의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화가 출판, TV방송물 제작 및 방영, 공연 등보다 우선하도록 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사가 작가의 2차 저작물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면 합의 및 대가 지불 필요.

(3) 각본계약서의 주요 변화 내용

① 단계 구분 용어의 정의

- 2012년 개발 계약서의 경우 단계 구분, 계약 중단 시 저작권 소유 주체 등과 관련된 판단 기준이 되는 용어 중에서 트리트먼트만 설명되어 있음.
 - 시나리오 집필 진행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및 계약 중단 시 저작권 소유 주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원안과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집필 과정에서의 작가와 제작사 간의 분쟁 발생시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설명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표준계약서에서는 집필 단계 구분의 기준이 되는 관련 용어를 설명하였음.
 - 원안은 영화화 권리 기간 설정 여부만이 아니라, 계약 중단이나 해지가 발생할 경우 저작재산권 소유 주체를 결정하는 주요한 용어임. 즉 이처럼 원안이 저작권을 보호해주어야 할 정도의 가치가 부여된 용어인 점을 고려하여 제작 부문(한국영화 제작가협회, PGK)과 창작 부문(작가조합, 감독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서 분량 등 원안으로서의 요건을 제시하였음.
 - 작가와 제작사가 대화로 통해 이해된 줄거리나 소재, 또는 단순한 A4 용지 1~2매 분량의 아이디어가 아닌 핵심 줄거리와 기획의도, 주요 등장인물, 주요 사건, 시공간적 배경 등을 담은 A4 용지 10매 이상으로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창작성이 있는 문서가 원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원안을 용어 정의하였음.
 - 트리트먼트도 원안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지 않았던 2012년과 달리, 원안에서 발전된 문서로서의 가치를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동의하는 범위로 정의하였으며, 집필의 결과물인 시나리오로서의 형태 및 요건 등도 제시하였음.

② 시나리오 집필 중단에 따른 조치

- 2012년에 개발한 계약서에서는 시나리오 집필 중단과 관련된 사항은 작가 컨셉 계약서에만 제시되었으며, 관련 내용도 제3조(시나리오의 집필) 5항과 제5조(시나리오 수정 및 작가의 고용) 1항에 중복되어 제시되었음.
- 시나리오 집필 중단의 경우 작가 원안일 때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작사 원안이나 원 저작물을 원안으로 한 각본 계약에도 발생된 적도 있고 가능성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사항을 작가 컨셉 각본계약에만 적용하였음.

- 작가 원안 각본계약서 제3조에는 제작사가 단계별로 집필 중단을 통보할 경우만을 중심으로 저작권 보유 대상자(트리트먼트 수령 후 작가 귀속, 시나리오 초고 수령 이후 제작사 귀속), 제작사가 작가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 등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제5조에는 단계별로 시나리오 집필 및 수정 과정에서의 작가나 제작사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저작권 보유 대상자, 상호간의 의무 등을 제시하였음.
 - 제5조에서는 초고 집필 완료 전에 작가의 결정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작가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나 제작사가 해당 시기까지 투입한 금액의 2배를 반환하도록 하였음. 초고 제출 후에 제작사가 해지한 경우에는 제작사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대신에 작가에게 크레딧과 수익지분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작가가 해지한 경우에는 작가가 해지 시까지 제작사가 투입한 금액의 2배를 반환해야 작가가 저작권을 보유할 수 있음. 제작사가 2고까지 수령한 경우에는 제작사의 결정에 따른 계약 종료만 제시하였으며, 저작권이 제작사에게 귀속하도록 하였음.
 - 작가에 의한 계약 중단의 경우 시나리오 집필 과정을 위해서만 소요된 경비로 인정(또는 검증)하기 쉽지 않은 제작사의 다른 비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작사 투입 경비의 2배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원안 작성자인 작가에게 저작권이 귀속될 수 있도록 옵션 형태로 별도의 각본계약서를 개발한 취지와 달리 원안 작성자인 작가의 저작권 보유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작가의 필요 및 판단에 따른 계약 중단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
 - 또한 단계별 제작사 통보에 의한 집필 중단이나 단계별 계약해지 모두 유사한 결과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제3조와 제5조에서 별도로 제시함으로써 계약 내용 이해의 어려움 및 해석상의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음. 예를 들어 계약의 단계별 진행 여부는 각 단계별로 제작사가 수령한 결과물일 수밖에 없는데, 제3조 트리트먼트 수령 후와 달리 제5조에서는 시나리오 초고 완료 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 다르게 표현하였음⁴⁾.
- 표준계약서에서는 모든 옵션 형태의 각본계약에서도 계약 중단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필 기간 중 서로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작사와 작가의 각자 필요 및 판단에 따라 집필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시나리오 초고 수령 이전 단계에서 계약이 중단될 경우 원안 작성자에게 저작재산

4) 트리트먼트 수령 후 시나리오 초고를 집필하고 있는 과정에도 계약해지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나리오 초고 집필 완료 전으로 구분하였겠지만, 작가가 약정한 반환 금액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저작권 소유 분쟁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작가의 컴퓨터에 저장된 시나리오 집필 결과물을 별도의 절차를 통해 받지 않는 한 트리트먼트로 동일할 수밖에 없어 트리트먼트 수령 후와 다르게 표현할 필요는 없음.

권이 귀속되도록 하고, 시나리오 초고 수령 이후에는 제작사에 저작권이 귀속 되도록 하였음.

- 저작권이 원안 작성자에게 귀속하도록 한 시나리오 초고 수령 이전 단계들에서는 원안 작성자가 작가로 작가가 집필 중단을 통지한 경우 트리트먼트 수령 이전 또는 이후의 단계별로 각각 기수령한 집필료와 집필료에 약정 이율을 곱한 지연이자, 또는 집필료의 2배를 반환하도록 하여 원안 작성자인 작가가 저작권을 보유하는데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기준을 명확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담이 감소하여 원안 작성자로서의 작가의 권리도 보장될 수 있을 것임.

[표 4] 2012년 개발 각본 계약서와 2014년 표준 각본 계약서의 차이 요약

	2012년 개발 계약서	2014년 표준 계약서
단계구분 관련 용어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소유 주체, 단계 등 계약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되는 용어 중에서 트리트먼트만 용어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리트먼트 이외 원안, 시나리오, 기획개발 등 계약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되는 용어를 정의.
시나리오 집필 중단에 따른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 컨셉 각본계약서만 적용. • 제3조(시나리오 집필)와 제5조(시나리오 수정)에 중단에 따른 처리 방안이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형태로 제시. • 트리트먼트 수령 후, 초고 집필완료 전, 시나리오 초고 수령(집필완료) 후, 2고 수령 후 등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계약 중단 시 저작권 및 상호의무 제시. • 2고까지 집필이 완료된 경우에만 중단주체 상관없이 제작사가 영화화와 관련된 저작권 보유. • 2고 집필 완료 전 작가가 집필 중단을 결정한 경우 제작사에게 제작사가 중단 이전까지 소요한 금액의 2배를 배상해야 저작권을 작가가 보유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본계약서 1종으로 일괄 적용. • 제5조(시나리오 집필 중단)에 중단 결정 주체별 처리 방안 제시. • 트리트먼트 수령 전, 트리트먼트 수령 후, 시나리오 초고 수령 후 등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계약 중단 시 저작권 및 상호의무 제시. • 제작사가 초고 수령한 이후에는 중단주체 상관없이 제작사가 영화화와 관련된 저작권 보유, • 초고 수령 이전 단계에서 작가가 집필 중단을 결정한 경우 저작권을 작가가 보유하기 위한 제작사에 대한 배상액의 현실화와 단계별 차등 적용.(최대 : 작가가 기수령한 집필료의 2배)

- 제작사나 작가의 판단 및 필요에 의한 계약 중단이 아니라 제3자와 체결한 기획개

발 관련 계약 종료 등의 다른 이유로 기획개발 자체가 중단되어 집필 중단이 될 경우 시나리오 초고를 제작사가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안 작성자인 작가가 제작사에게 기수령한 집필료와 경비를 반환할 경우 작가가 저작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음.

(4) 각색 계약서의 주요 변화 내용

- 2012년 개발 각색 계약서에서는 각색 작업 단계를 1고, 2고, 3고 등 3단계로 구분.
 - 이에 따라 각색 1고 단계의 각색 작업 대가로 3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였음.
- 표준계약서에서는 각색 작업 단계를 1고, 2고로 2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따라 1단계 작업 대가를 50% 이상 지급하도록 하였음.
 - 각색 작업이 많은 내용을 창작해야 하는 시나리오 집필과 달리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으로 각색 2고 작업까지 이루어지면 시나리오 전체의 맥락을 유지하면서 각색 작가로부터 수정 사항이나 내용 등을 추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2단계로만 구분하였음.
 - 각색 계약은 영화 제작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도를 갖춘 시나리오 상의 일부 내용이나 조정 필요 사항을 수정하는 작업으로 정의되는 업계의 인식을 고려하여, 각색의 기초가 되는 시나리오 전체를 거의 새롭게 구성하는 차원으로 시나리오 집필과 동일하게 3고까지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2012년 개발 계약서와 달리 2단계로 구분하였음.

[표 5] 2012년 개발 각색 계약서와 2014년 표준 각색 계약서의 차이 요약

	2012년 개발 계약서	2014년 표준 계약서
집필 기간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색 1고, 2고, 3고로 3단계 구분. • 1단계 지급 금액 전체 각본료의 3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색 1고, 2고로 2단계 구분. • 1단계 지급 금액 전체 각본료의 50% 이상.

Ⅱ. 시나리오 표준계약서(3종)

1. 영화화 권리 양도계약서
2. 각본계약서
3. 각색 계약서

표준 영화화권리 양도계약서(안)

_____ 소재 _____(이하 ‘제작사’라 한다)와 _____에 거주하는 _____(이하 ‘작가’라 한다)는 영화화 권리 양도에 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제2조에 명시된 시나리오(이하 “본건 시나리오”라 한다)에 대한 제4조 제1항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작사’와 ‘작가’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제 2 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본건 시나리오”의 제목, 작가 등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서 말미에 “본건 시나리오”를 첨부하기로 한다.

- (1) 제목 :
- (2) 작가 :
- (3) 내용 : 별도붙임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 2차 저작물 권리 : “본건 시나리오” 또는 “본건 영화”를 번역, 변형, 각색, 영상화, 공연(연극, 뮤지컬 등)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을 제작·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를 국내나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로 캐릭터(Character) 상품 사용권, Sponsor사용권(TV adaptations), 서적 및 기타 출판물 판매권, 영화의 국내·해외 리메이크 및 전/후편 저작물의 작성권, 국내외에서 공연 및 전시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게임판권, 기타 머천다이즈링 판권 등을 말한다.
- (2) 주 촬영 : 메인투자 계약,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스태프 고용 및 용역 계약, 배우 캐스팅 계약 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촬영을 의미한다.

- (3) 메인투자사 : “본건 영화”의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총 제작비를 조달하고, 제작비의 집행, 제작의 완성, 개봉, 정산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 (4) 순이익 : 별첨에서 정한다.
- (5) 수익 지분(율) : “본건 영화”의 순이익 발생 시 그 순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또는 그 비율)을 의미한다.
- (6) 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 : 메인투자사와 제작사 간의 메인투자계약에 약정한 “본건 영화”의 순이익 발생 시 제작사에게 지급되는 수익지분을 의미한다. 공동제작의 경우 공동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을 포함한다.

제 4 조 (권리 양도)

- (1) ‘작가’는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범위 내에서 “본건 시나리오”로 극장용 장편영화 1편(본 계약에서 “본건 영화”라 한다)을 제작하여, 전세계에 배급, 판매,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작사’에게 양도한다.
- (2) ‘제작사’가 “본건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년이다. 단, 본문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정한다.
- (3) ‘제작사’는 제(2)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작가’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되는 기간이나 기간 연장의 대가는 ‘제작사’와 ‘작가’가 별도로 서면 합의하여 정한다(이하, 제(2)항의 기간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까지 총칭하여 “영화화기간”이라 한다).
- (4) “본건 영화”의 언어는 [언어]로 한다. 다만, 다른 언어가 대사에 부분적으로 사용되거나, “본건 영화”를 다른 언어로 자막, 더빙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 (5) 영화화기간 내에 “본건 영화”의 주 촬영이 개시된 경우 영화화기간 이후라도 ‘제작사’는 촬영, 편집, 색보정, 음악, 음향 등 제작을 진행할 수 있고 제4조 제(1)항의 권리는 영화화기간 만료를 이유로 ‘작가’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 (6) ‘작가’는 “본건 시나리오”가 영화화 과정에서 제목, 스토리, 캐릭터 등 모든 요소가 변형, 각색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허락한다.

- (7) ‘작가’는 영화화기간 동안 제(1)항의 권리를 ‘제작사’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용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작가’는 ‘제작사’에게 20()년 ()월 ()일까지 제(1)항의 권리 양도 등록 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고, ‘제작사’는 저작권 양도 등록 시 본 조에서 정한 영화화기간 및 언어에 대한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본건 시나리오”가 기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작사’가 요청하면 ‘작가’는 “본건 시나리오”의 저작권을 등록한다.

제 5 조 (진술 및 보증)

- (1) ‘작가’는 “본건 시나리오”의 정당한 저작권자이며, “본건 시나리오”가 타인의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 (2) ‘작가’는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본건 시나리오”에 관하여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이 양도 또는 이용허락되었거나 질권이 설정되는 등 본 계약에 따른 ‘제작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부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 (3) 본 계약에 따른 영화화기간 동안 제3자에게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이용허락, 질권의 설정 등 본 계약에 따른 ‘제작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제 6 조 (영화화 권리 양도의 대가 지급)

- (1) ‘제작사’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건 시나리오”의 영화화 권리 양도의 대가로 금 []원을 법령에 따라 원천 징수되어야 할 세금을 공제한 후 ‘작가’에게 지급한다.
- (2) “본건 영화”의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제작사’는 제작사 몫 수익지분율의 ()%를 ‘작가’에게 지급한다. 단, ‘작가’에게 지급되는 본문의 수익지분율을 0%로 정하거나 공란으로 두어서는 아니된다.
- (3) ‘제작사’는 메인투자사로부터 받은 “본건 영화”의 국내 극장 개봉 이후, “본건 영화”의 총수익, 순이익 발생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산 서류를 ‘작가’ 또는 ‘작가’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와 같은 정산기준일에 따라 제

공해야 하며, 제(2)항에 약정한 수익지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작사’와 ‘작가’ 간의 정산기준일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작가’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제작사’는 사실상법률상의 폐업, 해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메인투자사로 하여금 ‘작가’에게 본 항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1차 : “본건 영화”의 극장중영일로부터 90일 이내 정산.
- ② 2차~5차 : 연 4회, 매분기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일은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 ③ 6차~7차 : 연 2회, 반기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일은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 ④ 8차 이후 : 매년 1회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일은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4) 제(3)항과 별도로 ‘작가’는 필요한 경우 “본건 영화”의 정산 및 수익분배와 관련된 서류를 교부할 것을 ‘제작사’에게 요구할 수 있고, ‘제작사’는 위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5) ‘제작사’가 ‘작가’에게 지급할 금원은 다음의 계좌로 입금한다.

- ① 은행:
- ② 예금주:
- ③ 계좌번호:

(6) ‘제작사’는 “본건 시나리오”를 극장용 영화로 제작, 배급, 광고, 홍보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의무가 없고, “본건 영화”에 관한 예산의 확정 및 변경, 제작비 집행, 감독, 스태프, 출연배우의 결정 등을 포함한 제작 진행에 관한 제반 의사결정 권한은 ‘제작사’에게 있다.

제 7 조(권리의 귀속 등)

(1) ‘작가’는 영화화기간 중에도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제4조 제(1)항의 권리를 제외한 모든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제4조 제(1)항의 권리 외의 저작재산권의 경우, ‘제작사’는 ‘작가’와 별도의 서면 합의 및 대가 지불을 통해 그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양도를 받거나 홀드백 기간을 정하여 ‘작가’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제한할 수 있다.

- (2) ‘제작사’는 “본건 영화”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의 전세계적으로 영구히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 다만, ‘작가’의 2차 저작물 권리는 ‘작가’에게 유보된다.
- (3)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2차 저작물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작가’와 협의를 거쳐 ‘작가’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불한 후 ‘작가’의 2차 저작물 권리를 양도 또는 이용허락 받아야 한다. 대가의 정도나 지급방식은 ‘제작사’와 ‘작가’가 서면 합의하여 정한다.
- (4) “본건 영화”가 “본건 시나리오”와 주요 인물묘사, 플롯의 전개, 주요 시퀀스의 사건, 씬 별 대사 및 지문 등이 다른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제작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작사’ 단독으로 “본건 영화”에 대한 2차 저작물 권리를 보유·행사할 수 있고 ‘작가’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
- (5)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배급, 개봉, 방송, 홍보 등을 위하여 ‘작가’의 이름, 초상, 자전적 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제8조 제(4)항에 따라 “본건 영화”에서 ‘작가’에 관한 크레딧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작가’의 이름, 초상, 자전적 자료 등을 “본건 영화”의 홍보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제 8 조 (크레딧)

- (1) ‘작가’는 “본건 영화”의 모든 프린트 및 광고, 홍보물에 관례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각본 ○○○”라는 크레딧을 단독으로 명기할 권리를 가진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본건 시나리오”를 원안으로 하여 다른 작가와 시나리오 초고를 새로이 작성하는 내용의 각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시나리오”가 아닌 다른 작가의 시나리오 초고에 기반을 둔 영화가 제작되어 크레딧을 병기해야 하는 경우, 병기 여부나 그 순서는 ‘제작사’와 ‘작가’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작사’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다.
- (3) 제(2)항의 크레딧 병기 여부 및 순서와 관련하여, ‘작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작사’는 병기 대상자가 “본건 시나리오”에 기여한 창작적 표현의 분량, 위치,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방법(각본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 사본)과 함께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4) ‘작가’는 “본건 영화”에서 ‘작가’에 관한 크레딧을 삭제해 줄 것을 ‘제작사’에게 서

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작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작가’에 의한 크레딧 삭제 요구는 본 계약에 따른 ‘작가’에 대한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9 조 (양도의 금지)

- (1) ‘제작사’는 ‘작가’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지위,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사전 동의 없이 ‘제작사’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정한 ‘작가’에 대한 크레딧, 수익지분의 제공 또는 지급 의무가 제3자에 의하여 이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제3자가 본 계약에서 약정한 크레딧, 수익지분의 제공 또는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작사’는 ‘작가’에게 수익지분을 지급하여야 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 (비밀 유지 의무)

- (1) ‘제작사’와 ‘작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등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 기타 매체에 제공하거나 쟁점화하거나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2) ‘제작사’와 ‘작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건 시나리오”를 일반 대중에게 배포, 전시 등 공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배포, 전시 등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1 조 (계약의 해제·해지)

- (1) ‘제작사’는 ‘작가’가 제4조 제(7)항, 제(8)항을 위반한 경우, 제5조의 진술 및 보증사항이 허위이거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본 계약을 서면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작가’는 ‘제작사’로부터 수령한 모든 금원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제작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2) ‘작가’는 ‘제작사’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 제13조를 위반하는 경우 ‘제작사’에게 그 의무의 이행 또는 위반의 금지를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다. 최고 후 2주일이 경과하여도 ‘제작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작가’는 본 계약을 서면으로 해제·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작가’는 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4조 제(1)항에 따라 양도한 권리는 작가에게 반환된다.

(3) ‘작가’와 ‘제작사’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권리의 귀속 및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서면 합의로 정한다.

(4) 본 조의 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2 조 (손해배상 등)

(1)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2) 제5조 제(1)항의 진술 및 보증사항이 허위인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책임은 ‘작가’에게 있고, 이와 관련하여 ‘제작사’가 제3자로부터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청구를 당하거나 형사처벌, 행정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을 경우 ‘작가’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변호사 보수 등 법률 비용 포함)을 부담하며, 자료 제공, 진술, 증언 등 필요한 모든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작가’가 제4조 제7항을 위반한 경우, 제5조 제(2)항, 제(3)항의 진술 및 보증사항이 허위이거나 ‘작가’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작가’는 제11조 제(1)항의 금원이나 본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과는 별개로 ‘제작사’에게 위약벌로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3 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제작사’와 ‘작가’는 대한민국 법령 및 한국영화계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이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와 ‘작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령을 그 준거법으로 하고,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제작사’와 ‘작가’ 사이에 본 계약 또는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작가’는 ‘제작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외에, “본건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을 중지·제한할 수 있는 가처분신청, 침해정지청구 등

을 제기하지 않는다.

제 14 조 (통지)

본 계약과 관련된 당사자에 대한 모든 통지, 동의, 요청, 합의 및 기타 통신은 이메일을 포함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아래 기재한 주소 또는 이메일로 전달된 의사표시만이 유효하다.

제작사에 대한 통지

(주 소)

(이메일)

작가에 대한 통지

(주 소)

(이메일)

제 15 조 (계약의 효력)

(1)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구두 또는 서면 합의는 본 계약 내용으로 대신한다.

(2) 모든 별첨, 부속합의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3) 본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 서면에 의하여만 변경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제작사'와 '작가'가 서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제작사' : 영 화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작 가' : 이 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별첨)

순이익의 정의

1. 비용관련 용어

가. 총제작비

아래 각 목의 순제작비, P&A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1) 순제작비 : 배우 출연료, 스태프 인건비, 장비사용료, 촬영진행비, 보험료, 필름비, 현상료, 제작사 경상비 등 “본건 영화”의 기획 및 제작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총계(부가가치세 포함)를 말한다.
- (2) P&A(Print & Advertising)비용 : “본건 영화”에 대한 “마케팅비”와 “배급비”를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 1) 마케팅비 : 영화관 개봉을 위해 광고 및 홍보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 2) 배급비 : “본건 영화”의 영화관 개봉 및 배급, 판권판매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프린트 제작비용, 입회비, 배급진행 경비, 발송비, 영화관 디지털 배급을 위한 비용 등을 포함한다.

나. 총비용

본 항의 총제작비에 아래 각 목의 배급수수료, 관리수수료, 해외수출 판매비용, 금융비용, 인센티브, 기타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1) 배급수수료 : 영화관배급수수료, 해외수출 배급수수료, 부가판권 등과 관련된 대행수수료(이하 “기타 배급수수료”라 한다)와 같이 “본건 영화”의 배급·판매·수출 등 수익 창출을 “투자사”가 직접 또는 대행사를 통해 수행함에 따라 그 대가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 (2) 관리수수료 :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 투자/조달, 제작 관리, 수익 정산 및 분배와 관련한 업무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의미한다.
- (3) 해외수출 판매비용 : “본건 영화”의 해외수출을 위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선재제작비, 번역료, 프린트비, 자막 작업비, 홍보물 제작비 및 해외 광고·홍보비, 마켓·영화제 참가 등 진행성 경비를 포함한다.
- (4) 금융비용 : “본건 영화”의 투자지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든 부분 투자자(제3조 제4항 바호에서 규정됨)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제3자로부터 조달한 차입금

(채무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말한다.

- (5) 인센티브 : 배우, 감독, 스태프 등에게 “본건 영화”가 일정 이상 흥행할 경우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상여금을 말한다.
- (6) 기타 비용 :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송금수수료, 회계감사수수료, 법률자문비용, 문화산업전문회사 관련 비용 등을 말한다.

2. 수익관련 용어

가. 총수익

아래 각 목의 영화관상영 수익, 부가판권 수익, 기타 부가판권 수익, 해외수출 수익, 협찬금 수익 등 “본건 영화”의 매출로 산출된 모든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단, 음반 및 음원 수익, 2차 저작물 수익은 권리자와 별도로 합의된 경우에 한하여 포함된다.

- (1) 영화관상영 수익 : “본건 영화”의 국내 영화관 상영으로 발생한 영화관 입장권 총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영화발전기금, 영화관 몫의 수익분배금을 공제한 이후의 수익으로 영화관에서 발행한 부금계산서의 금액으로 한다.
- (2) 부가판권 수익 : 국내에서 부가판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매출발생 과정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 (3) 기타 부가판권 수익 : 국내에서 기타 부가판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 (4) 해외수출 수익 : 해외수출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 (5) 협찬금 수익 : “본건 영화”의 제작 및 배급 등의 과정에서 제3자가 광고목적이나 지원목적으로 “투자사”나 “제작사”에게 지불하는 협찬금 또는 지원금, PPL(Product Placement) 대금 등으로 그 명칭을 불문한다.
- (6) 2차 저작물 수익 : 2차 저작물 권리를 이용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로열티 등 매출액을 말한다.
- (7) 음원 및 음반 수익 : 국내에서 음반 및 음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매출발생 과정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나. 순이익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표준각본계약서(안)

_____에 거주하는 작가 _____ (이하 ‘작가’라 한다)와
_____소재 영화사 _____(이하 ‘제작사’라 한다)은 상호간의
합의하에 다음과 같이 극장용 장편영화의 각본계약서를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제2조에 명시된 원안을 기초로 하여 극장용 장편영화의 각본(이하 “본건 시나리오”라 한다)을 집필하는 것과 관련하여 ‘작가’, ‘제작사’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제 2 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본건 시나리오”의 제목, 원안 작성자, 개요 등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서 말미에 “본건 시나리오” 집필의 기초가 되는 원안을 첨부하기로 한다. “본건 시나리오”의 범위에는 제4조 제(2)항에 명시한 모든 단계의 집필 결과물이 포함되고, 본 계약에서 “본건 시나리오”는 맥락에 따라 각 단계의 단독적인 집필 결과물만을 의미하거나 모든 단계의 집필 결과물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한다.

- (1) 제 목 : () (가제)
- (2) 원안 작성자 :
- (3) 개 요 : (주요사건, 시·공간배경, 주요인물, 핵심줄거리, 기획의도)

제 3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 원안 : “본건 시나리오” 집필의 기초가 되는 A4용지 10매 이상(200자 원고지 환산시 60매 이상) 분량의 문서로, 영화의 장르, 기획의도, 주제, 시작·중간·결말로 이루어진 핵심 줄거리가 항목별로 서술되어 있고, 주요 등장인물, 주요 사건, 시공간적 배경이 드러나야 하며,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창작성이 있는 문서를 말한다.

- (2) 트리트먼트 : 원안을 보다 구체화한 A4용지 20매 이상(200자 원고지 환산 시 120매 이상) 분량의 문서로, 단순한 스토리라인이 아닌 플롯의 전개가 이루어지고, 주요 등장인물의 묘사, 인물 간 관계와 갈등 구조가 드러나며, 주요 시퀀스의 사건과 시공간 배경이 서술되는 시나리오 이전 단계의 문서를 말한다.
- (3) 시나리오 : A4 용지 50매 이상(200자 원고지 환산 시 300매 이상) 분량의 문서로, 반드시 대사와 지문으로 이루어진 씬 단위로 작성되어 영화 제작 및 촬영이 가능한, 완결된 형태와 구조의 대본을 뜻한다.
- (4) 기획개발 : 아이디어나 원안 등 영화화가 가능한 아이টে를 발견, 착상, 기획하고 영화 제작 및 투자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시나리오 등을 개발·완성하여 배우와 감독의 캐스팅 등을 비롯하여 최종적으로 제작·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데까지 이르는 일련의 모든 작업을 총칭한다.
- (5) 2차 저작물 권리 : 본 계약에 의거하여 “본건 시나리오”로 극장용 영화 1편(이하 “본건 영화”라 한다)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하고, 원안, “본건 시나리오” 또는 “본건 영화”를 번역, 변형, 각색, 영상화, 공연(연극, 뮤지컬 등)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을 제작·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를 국내나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로 캐릭터(Character) 상품 사용권, Sponsor사용권(TV adaptations), 서적 및 기타 출판물 판매권, 영화의 국내·해외 리메이크 및 전/후편 저작물의 작성권, 국내·외에서 공연 및 전시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게임판권, 기타 머천다이즈링 판권 등을 말한다.
- (6) 메인투자사 : “본건 영화”의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총 제작비를 조달하고, 제작비의 집행, 제작의 완성, 개봉, 정산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 (7) 순이익 : 별첨에서 정한다.
- (8) 수익 지분(율) : “본건 영화”의 순이익 발생 시 그 순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또는 그 비율)을 의미한다.
- (9) 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 : 메인투자사와 제작사 간의 메인투자계약에 약정한 “본건 영화”의 순이익 발생 시 제작사에게 지급되는 수익지분율을 의미한다. 공동제

작의 경우 공동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을 포함한다.

제 4 조 (시나리오의 집필)

- (1) ‘제작사’와 ‘작가’는 전체 시나리오 집필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단, ‘작가’와 ‘제작사’가 합의하여 시나리오 집필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아래 약정한 기간의 20%를 넘기지 않는다.

시나리오 집필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까지.

- (2) ‘작가’는 ‘제작사’의 요구에 부응하여 “본건 영화”의 예산과 규모에 적합한 형태로 제(1)항에서 정한 전체 집필기간 내에서 트리트먼트 단계부터 시나리오 3고 단계 까지 집필을 완료하고, 상호 합의한 아래와 같은 일정에 맞추어 각 단계별 집필 결과물을 출력된 문서 또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제작사’에게 제출한다.

- ① 트리트먼트 :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 ② 시나리오 초고 :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 ③ 시나리오 2고 :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 ④ 시나리오 3고 :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 (3) ‘제작사’는 ‘작가’로부터 각 단계별 집필 결과물을 수령한 후 [21]일 이내에 ‘작가’가 다음 단계 집필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진행하여야 할 집필 작업의 종류, 집필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작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작사’가 상호 합의에 따른 기간 연장 없이 위 기간 내에 결정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작가’에게 다음 단계 집필에 착수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작사’가 위 기간 내에 ‘작가’에게 다음 단계 집필에 착수하지 않을 것을 통보한 경우 제5조를 준용한다.

- (4) ‘제작사’는 시나리오 초고 또는 2고 수령 후 시나리오 집필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게 될 경우 ‘작가’에게 집필료 잔금을 지급하고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 (5) ‘제작사’는 시나리오 집필을 위하여 ‘작가’에게 한국영화계에서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6) ‘작가’는 “본건 시나리오”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 (7) ‘작가’는 본 계약에서 정한 작가로서의 용역 제공이 완결될 때까지 ‘제작사’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작가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 5 조 (시나리오 집필의 중단)

- (1) ‘제작사’와 ‘작가’는 제4조 제(1)항의 집필기간 중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의 필요 및 판단에 의해 상대방에게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집필 중단을 통지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지를 수령하는 즉시 본 계약은 종료한다. 이 경우 권리의 귀속이나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은 본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제작사’ 트리트먼트 수령 전

- ① 원안 및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변동되지 않는다. 다만, 원안 작성자가 ‘작가’가 아닌 경우 ‘작가’는 “본건 시나리오” 중 원안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작가’가 집필 중단을 통지한 경우 ‘작가’는 기 수령한 집필료 및 이에 대한 지급 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이율)%의 지연이자를 ‘제작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제작사’가 집필 중단을 통지한 경우에는 ‘작가’는 집필료 등 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③ ‘제작사’는 ‘작가’에게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집필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제작사’ 트리트먼트 수령 후

- ① 원안 및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원안 작성자인 ()에게 귀속된다. 다만, 원안 작성자가 ‘작가’로 ‘작가’가 집필 중단을 통지한 경우 ②호의 금원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작가’는 ‘제작사’와 공동으로 그 권리를 보유하고 단독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② 원안 작성자가 ‘작가’로 ‘작가’가 집필 중단을 통지한 경우 ‘작가’는 기 수령한 집필료의 2배를 ‘제작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작가’는 집필료 등 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③ ‘제작사’는 ‘작가’에게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집필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제작사’ 시나리오 초고 수령 후

- ① 권리의 귀속에 관한 내용은 제8조가 적용된다.
- ② ‘작가’는 집필료 등 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③ ‘작가’가 집필 중단을 통지한 경우 ‘제작사’는 ‘작가’에게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집필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본건 영화”의 제작이 완료되어 개봉하더라도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약정한 크레딧과 수익지분을 ‘작가’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다.
- ④ ‘제작사’가 집필 중단을 통지한 경우 추후 “본건 영화”에 대한 메인투자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약정한 집필료 잔금을 메인투자계약에 따른 최초 투자금이 ‘제작사’에 입금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작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본건 영화”의 제작이 완료되어 개봉하는 경우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약정한 크레딧과 수익지분을 ‘작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본건 시나리오”와 “본건 영화”가 주요 인물묘사, 플롯의 전개, 주요 시퀀스의 사건, 씬 별 대사 및 지문 등이 다른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제작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수익지분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 (5) 제3자와 체결한 기획개발계약의 종료 등으로 “본건 시나리오”와 관련한 기획개발 자체가 중단되어 집필 중단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작사’가 시나리오 초고를 수령하였더라도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안 작성자인 ‘작가’는 ‘제작사’에게 기 수령한 집필료 및 경비를 반환한 후 원안 및 집필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행사할 수 있다.

제 6 조 (시나리오 수정 등)

(1) 수정의 권한

- ① ‘제작사’는 ‘작가’가 집필하여 제출한 “본건 시나리오”에 대하여 수정의 권한을 가진다. ‘작가’는 ‘제작사’의 요청에 따라 “본건 시나리오”의 제목을 비롯하여 주제, 플롯, 스토리, 캐릭터의 설정 등을 수정하기 위하여 ‘제작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작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작가’는 감독, 다른 작가 등 제3자와 상호 협의하여 수정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② ‘작가’와 ‘제작사’ 간에 본 계약에 따른 “본건 시나리오”의 방향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최종 결정권은 ‘제작사’에게 있으며 ‘작가’는 ‘제작

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단 '제작사'는 '작가'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 원안 또는 트리트먼트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내용의 수정을 '작가'에게 요구할 수 없다.

- (2) 다른 작가의 고용 : '제작사'는 '작가'가 '제작사'에게 제출한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수정과 관련하여 집필기간 종료 후라도 '작가'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작가' 이외의 다른 작가를 고용하여 “본건 시나리오”를 수정할 수 있다.

제 7 조 (영화 제작 여부에 관한 결정권 등)

- (1) “본건 영화”에 관한 예산의 확정 및 변경, 제작비 집행, 감독, 스태프, 출연배우의 결정 등을 포함한 제작 진행에 관한 제반 의사결정 권한은 '제작사'에게 있다.
- (2) '제작사'는 “본건 시나리오”를 극장용 영화로 제작, 배급, 광고, 홍보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의무가 없다.

제 8 조 (권리의 귀속 등)

- (1) '작가'는 “본건 시나리오”를 창작한 저작자로, 본 조에 정하는 권리의 귀속에 관한 내용이 위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 본 계약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안, “본건 시나리오” 및 “본건 영화”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는 '제작사'에게 전세계적으로 영구히 귀속된다. 다만, '작가'의 2차 저작물 권리는 '작가'에게 유보된다.
- (3) '제작사'가 2차 저작물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작가'와 협의를 거쳐 '작가'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불한 후 필요한 권리를 양도 또는 이용허락 받아야 한다. 대가의 정도나 지급방식은 '제작사'와 '작가'가 서면 합의하여 정한다. 단, 소설, 웹툰 등 원저작물을 원안으로 한 경우에는 '제작사'와 원저작물 권리자 간의 관련 계약 내용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 (4) '작가'는 '제작사'의 동의 없이 자신의 2차 저작물 권리를 처분, 행사할 수 없다.
- (5) “본건 영화”가 “본건 시나리오”와 주요 인물묘사, 플롯의 전개, 주요 시퀀스의 사건, 씬 별 대사 및 지문 등이 다른 ‘새로운 창작물’이라는 점을 ‘제작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작사’는 단독으로 “본건 영화”에 대한 2차 저작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작가’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

- (6)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본건 시나리오”를 극장용 영화로 제작하지 아니한 채 “본건 시나리오”에서 ‘작가’가 창작한 내용 중 일부 캐릭터나 에피소드만을 인용·변형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작가’의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한 영화는 “본건 영화”로 간주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지분, 크레딧을 지급하여야 한다.
- (7)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배급, 개봉, 방송, 홍보 등을 위하여 ‘작가’의 이름, 초상, 자전적 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제11조 제(4)항에 따라 “본건 영화”에서 ‘작가’의 크레딧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작가’의 이름, 초상, 자전적 자료 등을 “본건 영화”의 홍보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제 9 조 (권리귀속 특약 사항)

- (1) 본 조는 원안 작성자와 ‘작가’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2) ‘제작사’가 “본건 시나리오”의 저작재산권자가 되는 것은 “본건 시나리오”의 영화화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제작사’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년이 되는 시점까지 메인투자계약 체결 또는 주연배우의 캐스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원안 작성자인 ‘작가’에게 “본건 시나리오”의 저작재산권이 반환된다. 단, 본문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정한다.
- (3) ‘제작사’는 제(2)항 본문의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에 ‘작가’에게 “본건 시나리오”의 영화 제작을 위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되는 기간이나 기간 연장의 대가는 ‘제작사’와 ‘작가’가 별도로 서면 합의하여 정한다.

제 10 조 (시나리오 집필 및 저작권 양도의 대가 지급)

- (1) ‘제작사’는 ‘작가’에게 “본건 시나리오” 집필의 대가(이하 ‘집필료’라 한다)로 금원 (₩ 원정)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제작사’는 제(1)항의 집필료를 다음과 같은 일정과 방법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되어야 할 세금을 공제한 후 ‘작가’에게 지급한다. 이때 트리트먼트 단계의 집필료는 제(1)항의 집필료의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작가’의 집필 작업이

지연되어 각 단계별 작업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제작사'는 '작가'에게 추가적인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 |
|-----------|-----|---------------------------|
| ① 트리트먼트 | : 금 | 원 (본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지급) |
| ② 시나리오 초고 | : 금 | 원 (집필 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지급) |
| ③ 시나리오 2고 | : 금 | 원 (집필 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지급) |
| ④ 시나리오 3고 | : 금 | 원 (집필 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지급) |

(3) “본건 영화”의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작가’가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한 것에 대한 대가로 ‘제작사’는 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의 ()%를 ‘작가’에게 수익지분을 제공해야 하며, 작가에게 제공되는 수익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작가’ 또는 ‘작가’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지급한다. 단, ‘작가’에게 지급되는 본문의 수익지분율을 0%로 정하거나 공란으로 두어서는 아니된다.

(4) ‘제작사’는 메인투자사로부터 받은 “본건 영화”의 국내 극장 개봉 이후, “본건 영화”의 총수익, 순이익 발생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산 서류를 ‘작가’ 또는 ‘작가’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와 같은 정산기준일에 따라 정산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본조 제(3)항에 약정한 수익지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작사’와 ‘작가’ 간의 정산기준일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작가’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제작사’는 사실상법률상의 폐업, 해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메인투자사로 하여금 ‘작가’에게 본 항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1차 : “본건 영화”의 극장중영일로부터 90일 이내 정산.
- ② 2차~5차 : 연 4회, 매분기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일은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 ③ 6차~7차 : 연 2회, 반기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일은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 ④ 8차 이후 : 매년 1회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일은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5) 본조 제(4)항과 별도로 ‘작가’는 필요한 경우 “본건 영화”의 정산 및 수익분배와 관련한 서류를 교부할 것을 ‘제작사’에게 요구할 수 있고, ‘제작사’는 위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6) ‘제작사’가 ‘작가’에게 지급할 집필료 및 수익지분은 다음의 계좌로 입금한다.

- ① 은행 :
- ② 예금주 :
- ③ 계좌번호 :

제 11 조 (크레딧)

- (1) 본 계약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바가 없고, 본 계약이 해제·해지됨 없이 ‘작가’가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을 완료한 경우 “작가”는 “본건 영화”의 모든 프린트 및 광고, 홍보물에 관례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각본 ○○○”라는 크레딧을 명기할 권리를 가진다. 크레딧의 크기, 위치, 표시방법은 ‘제작사’와 ‘작가’가 상호 협의하되, ‘제작사’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다.
- (2) ‘제작사’가 다른 작가와 본 계약에 준하는 작가 용역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각본 계약을 체결하여 크레딧을 병기해야 하는 경우, 병기 여부나 그 순서는 ‘제작사’와 ‘작가’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작사’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다.
- (3) 제(2)항의 크레딧 병기 여부 및 순서와 관련하여 ‘작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작사’는 병기 대상자가 “본건 영화”에 기여한 창작적 표현의 분량, 위치,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방법(각본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 사본)과 함께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4) ‘작가’는 “본건 영화”에서 ‘작가’에 관한 크레딧을 삭제해 줄 것을 ‘제작사’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작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작가’에 의한 크레딧의 삭제 요구는 본 계약에 따른 ‘작가’에 대한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위임 및 양도 등)

- (1) ‘작가’는 자신의 작가로서의 고유한 용역을 대신 제공하기 위하여 “본건 시나리오”의 집필 과정에서 제3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또한 ‘작가’는 ‘제작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본 계약상 의무인 용역의 제공을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도급을 시킬 수 없다.

- (2) ‘제작사’는 ‘작가’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지위,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본건 시나리오”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담보 제공 등 처분할 수 없다.
-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사전 동의 없이 ‘제작사’가 본 계약상의 의무 또는 “본건 시나리오”의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정한 ‘작가’에 대한 잔금, 크레딧, 수익지분의 제공 또는 지급 의무가 제3자에 의하여 이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제3자에 의하여 “본건 영화”가 제작되어 개봉하였음에도 제3자가 본 계약에서 약정한 잔금, 크레딧, 수익지분의 제공 또는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작사’는 ‘작가’에게 잔금 및 수익지분을 지급하여야 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3 조 (비밀 유지 의무)

- (1) ‘제작사’와 ‘작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등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 기타 매체에 제공하거나 쟁점화하거나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2) ‘작가’는 ‘제작사’의 동의 없이 “본건 시나리오”를 일반 대중에게 배포, 전시 등 공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배포, 전시 등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계약의 해제·해지)

- (1) ‘작가’는 ‘제작사’가 제1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집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5)항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작사’에게 그 의무의 이행 또는 위반의 금지를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다. 최고 후 2주일이 경과하여도 ‘제작사’가 의무를 이행하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작가’는 본 계약을 서면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작가’는 그때까지 이미 지급받은 집필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제작사’는 “본건 시나리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제작사’는 ‘작가’가 제4조 제1항에 따른 집필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4조 제(7)항, 제12조 제(1)항, 제13조를 위반하는 경우 ‘작가’에게 그 의무의 이행 또는 위반

의 금지를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다. 최고 후 2주일이 경과하여도 ‘작가’가 의무를 이행하거나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작사’는 본 계약을 서면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작가’가 제4조 제(6)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서면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 ‘제작사’는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2차 저작물 권리 포함)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작가’는 “본건 시나리오”를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제작사’는 ‘작가’에게 약정한 집필료 잔금, 크레딧, 수익지분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제작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작가’는 ‘제작사’로부터 지급 받았던 집필료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제작사’에게 반환해야 한다.

(3) ‘작가’와 ‘제작사’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권리의 귀속 및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서면 합의로 정한다.

(4) 본 조의 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5 조 (손해배상)

(1)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2) ‘작가’가 제4조 제(6)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책임은 ‘작가’에게 있고, 이로 인하여 ‘제작사’가 제3자로부터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청구를 당하거나 형사처벌, 행정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을 경우 ‘작가’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변호사 보수 등 법률 비용 포함)을 부담하며, 자료 제공, 진술, 증언 등 필요한 모든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16 조 (불가항력)

(1) ‘제작사’와 ‘작가’는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련 법령의 개폐, 화재 기타 천재지변, 전쟁, 파업, 기타 각 당사자의 합리적인 지배를 넘어서는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작가’는 집필료 등 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제

작사'는 '작가'에게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집필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권리는, 제5조 제(2)항 ①호, 제(3)항 ①호 본문, 제(4)항 ①호, 제(5)항의 경우에 준하여 귀속된다.

제 17 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제작사’와 ‘작가’는 대한민국 법령 및 한국영화계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이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와 ‘작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령을 그 준거법으로 하고,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 (3) ‘제작사’와 ‘작가’ 사이에 본 계약 또는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작가’는 ‘제작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외에, “본건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을 중지·제한할 수 있는 가처분신청, 침해정지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

제 18 조 (통지)

본 계약과 관련된 당사자에 대한 모든 통지, 동의, 요청, 합의 및 기타 통신은 이메일을 포함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아래 기재한 주소 또는 이메일로 전달된 의사표시만이 유효하다.

제작사에 대한 통지

(주 소)

(이메일)

작가에 대한 통지

(주 소)

(이메일)

제 19 조 (계약의 효력)

- (1)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구두 또는 서면 합의는 본 계약 내용으로 대신한다.

(2) 모든 별첨, 부속합의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3) 본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 서면에 의하여만 변경할 수 있다.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제작사'와 '작가'가 서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 한다

년 월 일

'제작사' : 영 화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작 가' : 이 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별첨)

순이익의 정의

1. 비용관련 용어

가. 총제작비

아래 각 목의 순제작비, P&A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1) 순제작비 : 배우 출연료, 스태프 인건비, 장비사용료, 촬영진행비, 보험료, 필름비, 현상료, 제작사 경상비 등 “본건 영화”의 기획 및 제작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총계(부가가치세 포함)를 말한다.
- (2) P&A(Print & Advertising)비용 : “본건 영화”에 대한 “마케팅비”와 “배급비”를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 1) 마케팅비 : 영화관 개봉을 위해 광고 및 홍보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 2) 배급비 : “본건 영화”의 영화관 개봉 및 배급, 판권판매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 프린트 제작비용, 입회비, 배급진행 경비, 발송비, 영화관 디지털 배급을 위한 비용 등을 포함한다.

나. 총비용

본 항의 총제작비에 아래 각 목의 배급수수료, 관리수수료, 해외수출 판매비용, 금융비용, 인센티브, 기타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1) 배급수수료 : 영화관배급수수료, 해외수출 배급수수료, 부가판권 등과 관련된 대행수수료(이하 “기타 배급수수료”라 한다)와 같이 “본건 영화”의 배급·판매·수출 등 수익 창출을 “투자사”가 직접 또는 대행사를 통해 수행함에 따라 그 대가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 (2) 관리수수료 : “본건 영화”의 총제작비 투자/조달, 제작 관리, 수익 정산 및 분배와 관련한 업무에 대한 용역수수료를 의미한다.
- (3) 해외수출 판매비용 : “본건 영화”의 해외수출을 위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선재제작비, 번역료, 프린트비, 자막 작업비, 홍보물 제작비 및 해외 광고·홍보비, 마켓·영화제 참가 등 진행성 경비를 포함한다.
- (4) 금융비용 : “본건 영화”의 투자지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든 부분 투자자(제3조 제4항 바호에서 규정됨)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제3자로부터 조달한 차입금

(채무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말한다.

- (5) 인센티브 : 배우, 감독, 스태프 등에게 “본건 영화”가 일정 이상 흥행할 경우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상여금을 말한다.
- (6) 기타 비용 :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송금수수료, 회계감사수수료, 법률자문비용, 문화산업전문회사 관련 비용 등을 말한다.

2. 수익관련 용어

가. 총수익

아래 각 목의 영화관상영 수익, 부가판권 수익, 기타 부가판권 수익, 해외수출 수익, 협찬금 수익 등 “본건 영화”의 매출로 산출된 모든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단, 음반 및 음원 수익, 2차 저작물 수익은 권리자와 별도로 합의된 경우에 한하여 포함된다.

- (1) 영화관상영 수익 : “본건 영화”의 국내 영화관 상영으로 발생한 영화관 입장권 총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영화발전기금, 영화관 몫의 수익분배금을 공제한 이후의 수익으로 영화관에서 발행한 부금계산서의 금액으로 한다.
- (2) 부가판권 수익 : 국내에서 부가판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매출발생 과정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 (3) 기타 부가판권 수익 : 국내에서 기타 부가판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 (4) 해외수출 수익 : 해외수출권을 이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 (5) 협찬금 수익 : “본건 영화”의 제작 및 배급 등의 과정에서 제3자가 광고목적이나 지원목적으로 “투자사”나 “제작사”에게 지불하는 협찬금 또는 지원금, PPL(Product Placement) 대금 등으로 그 명칭을 불문한다.
- (6) 2차 저작물 수익 : 2차 저작물 권리를 이용하여 발생한 저작권료, 로열티 등 매출액을 말한다.
- (7) 음원 및 음반 수익 : 국내에서 음반 및 음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매출발생 과정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한다.

나. 순이익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표준각색계약서(안)

_____소재 _____영화사 _____(이하 ‘제작사’라 한다)와
_____에 거주하는 작가 _____(이하 ‘작가’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극장용 장편영화의 제작을 위해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각색 시나리오(이하 “본건 각색 시나리오”라 한다)를 작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작사’, ‘작가’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제 2 조 (계약의 대상)

(1) 본 계약에 따른 각색의 대상이 되는 시나리오의 제목, 각본작가 등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서 말미에 각색의 대상이 되는 시나리오(이하 “원 시나리오”라 한다) 첨부
하기로 한다.

- ① 제 목 :
- ② 각본작가 :
- ③ 형 태 : 시나리오

(2) “본건 각색 시나리오”의 범위에는 제3조 제(2)항에 명시한 모든 단계의 각색 결과물
이 포함되고, 본 계약에서 “본건 각색 시나리오”는 맥락에 따라 각 단계의 단독적인
각색 결과물만을 의미하거나 모든 단계의 각색 결과물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한다.

제 3 조 (시나리오 각색)

(1) ‘제작사’와 ‘작가’는 전체 시나리오 각색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단,
‘작가’와 ‘제작사’가 합의하여 시나리오 각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아래 약정한 기간의 20%를 넘기지 않는다.

시나리오 각색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까지.

- (2) ‘작가’는 ‘제작사’의 요구에 부응하여 “본건 각색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최초 제작되는 극장용 영화(이하 “본건 영화”라 한다)의 예산과 규모에 적합한 형태로 제(1)항에서 정한 전체 각색기간 내에서, 상호 합의한 아래와 같은 일정에 맞추어 각 단계별로 각색을 완료하고, 각 단계별 각색 결과물을 출력된 문서 또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제작사’에게 제출한다.
- ① 시나리오 각색 1고 :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 ② 시나리오 각색 2고 :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 (3) ‘제작사’는 ‘작가’로부터 각 단계별 각색 결과물을 수령한 후 [21]일 이내에 ‘작가’가 다음 단계 각색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진행하여야 할 각색 작업의 종류, 각색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작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작사’가 상호 합의에 따른 기간 연장 없이 위 기간 내에 결정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작가’에게 다음 단계 각색에 착수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 (4) ‘제작사’가 제(3)항에 따라 ‘작가’에게 다음 단계 각색에 착수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거나, 제(1)항의 각색기간 중 ‘작가’가 본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제작사’의 필요나 사정에 의해 각색 중단을 통지하는 경우 ‘작가’가 그 통보·통지를 수령하는 즉시 본 계약은 종료한다. 이 경우 ‘작가’는 각색료 등 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본건 각색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제작사’에게 귀속된다.
- (5) ‘제작사’가 시나리오 각색 1고 수령 후 시나리오의 각색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게 될 경우 ‘작가’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 (6) ‘제작사’는 각색 작업을 위하여 ‘작가’에게 한국영화계에서 관례적으로 제공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7) ‘작가’는 “본건 각색 시나리오”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어떠한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한다.
- (8) ‘작가’는 본 계약에서 정한 작가로서의 용역 제공이 완결될 때까지 ‘제작사’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작가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 4 조 (시나리오의 수정 및 작가의 고용)

(1) 수정의 권한

- ① ‘제작사’는 ‘작가’가 각색하여 제출한 “본건 각색 시나리오”에 대하여 수정의 권한을 가진다. ‘작가’는 ‘제작사’의 요청에 따라 “본건 각색 시나리오”의 제목을 비롯하여 주제, 플롯, 스토리, 캐릭터의 설정 등을 수정하기 위하여 ‘제작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작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작가’는 감독, 다른 작가 등 제3자와 상호 협의하여 수정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② ‘제작사’와 ‘작가’ 간에 본 계약에 따른 “본건 각색 시나리오”의 방향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최종 결정권은 ‘제작사’에게 있으며 ‘작가’는 ‘제작사’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작사’는 ‘작가’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 “원 시나리오”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분량이나 내용의 수정을 ‘작가’에게 요구할 수 없다.

- (2) “다른 작가”의 고용 : ‘제작사’는 ‘작가’가 ‘제작사’에게 제출한 “본건 각색 시나리오”에 대한 수정권한과 관련하여 각색기간 동안은 물론 각색기간 종료 후라도 ‘작가’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작가’ 이외의 다른 작가를 고용하여 “본건 각색 시나리오”를 수정할 수 있다.

제 5 조 (영화 제작 여부에 관한 결정권 등)

- (1) “본건 영화”에 관한 예산의 확정 및 변경, 제작비 집행, 감독, 스태프, 출연배우의 결정 등을 포함한 제작 진행에 관한 제반 의사결정 권한은 ‘제작사’에게 있다.
- (2) ‘제작사’는 “본건 각색 시나리오”를 극장용 영화로 제작, 배급, 광고, 홍보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의무가 없다.

제 6 조 (권리의 귀속 등)

- (1) ‘제작사’는 “본건 각색 시나리오” 및 “본건 영화”에 관한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포함한 제반 권리의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
- (2)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배급, 개봉, 방송, 홍보 등을 위하여 ‘작가’의 이름, 초상, 자전적 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작가’의 요구에 따라 “본건 영화”에서 ‘작가’에 관한 크레딧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작가’의 이름, 초상, 자전적 자료 등을 “본건 영화”의 홍보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제 7 조 (시나리오 각색 대가 지급 및 인센티브)

- (1) ‘제작사’는 ‘작가’에게 시나리오 각색 작업의 대가(본 계약에서 ‘각색료’라 한다)로
금 원 (₩ 원정)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제작사’는 제(1)항의 각색료를 다음과 같은 일정과 방법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되어야 할 세금을 공제한 후 ‘작가’에게 지급한다. 이때 각색 1고 단계의
각색료는 제(1)항의 각색료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작가’의 작업이 지연되어
각 단계별 작업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제작사’는 ‘작가’에게 추가적인 보수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
 - ① 각색 1고 : 금 원 (본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지급)
 - ② 각색 2고 : 금 원 (각색 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지급)
- (3) 본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제3조 제(4)항에 따라 종료되지 않고, ‘작가’가 본 계약
에 따른 각색 용역 제공을 완료한 것을 조건으로, ‘제작사’가 ‘작가’에게 별도의 인
센티브를 지급할 경우 금액 및 지급방식은 별도 서면 합의로 정한다.
- (4) ‘제작사’가 ‘작가’에게 지급할 각색료 및 인센티브는 다음의 계좌로 입금한다.
 - ① 은행 :
 - ② 예금주 :
 - ③ 계좌번호 :

제 8 조 (크레딧)

- (1) 본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제3조 제(4)항에 따라 종료되지 않고, ‘작가’가 본 계약
에 따른 각색 용역 제공을 완료한 경우, ‘작가’는 “본건 영화”의 모든 프린트에
“각색 ○○○”라는 크레딧을 명기할 권리를 가진다. 크레딧의 크기, 위치, 표시방
법은 ‘제작사’와 ‘작가’ 상호간의 합의에 따른다.
- (2) ‘제작사’가 다른 작가와 각색 계약을 체결하여 크레딧을 병기해야 하는 경우 병기
여부나 그 순서는 ‘제작사’와 ‘작가’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작사’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다.
- (3) 크레딧 병기 여부 및 순서와 관련하여 ‘작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작사’는 병
기 대상자가 “본건 영화”에 기여한 창작적 표현의 분량, 위치,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

방법(각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 사본)과 함께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4) 제3자에 의해 수정된 “본건 각색 시나리오” 또는 완성된 “본건 영화”가 ‘작가’가 집필한 “본건 각색 시나리오” 또는 ‘작가’의 당초의 집필 의도와 상당히 다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작가’는 “본건 영화”에서 ‘작가’에 관한 크레딧을 삭제해 줄 것을 ‘제작사’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작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작가’에 의한 크레딧의 삭제 요구는 본 계약에 따른 ‘작가’에 대한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9 조 (위임 및 양도 등)

- (1) ‘작가’는 자신의 작가로서의 고유한 용역을 대신 제공하기 위하여 “본건 각색 시나리오”의 각색 과정에서 제3자를 고용하지 않는다. 또한 ‘작가’는 ‘제작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본 계약상 의무인 용역의 제공을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도급을 시킬 수 없다.
- (2) ‘제작사’는 ‘작가’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사전 동의 없이 ‘제작사’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정한 ‘작가’에 대한 잔금, 크레딧, 인센티브의 제공 또는 지급 의무가 제3자에 의하여 이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제3자가 본 계약에서 약정한 잔금, 크레딧, 인센티브의 제공 또는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작사’는 ‘작가’에게 잔금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 (비밀 유지 의무)

- (1) ‘제작사’와 ‘작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등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 기타 매체에 제공하거나 쟁점화하거나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2) ‘작가’는 ‘제작사’의 동의 없이 “원 시나리오” 및 “본건 각색 시나리오”를 일반 대중에게 배포, 전시 등 공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배포, 전시 등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1 조 (계약의 해제·해지)

- (1) ‘작가’는 ‘제작사’가 제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각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 제(6)항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작사’에게 그 의무의 이행 또는 위반의 금지를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다. 최고 후 2주일이 경과하여도 ‘제작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작가’는 본 계약을 서면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작가’는 그때까지 이미 지급받은 각색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건 각색 시나리오” 중 “원 시나리오”에 존재하지 않았던 ‘작가’가 각색 과정에서 창작한 부분에 관한 저작권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제작사’는 “본건 각색 시나리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제작사’는 ‘작가’가 제3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각색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3조 제(8)항, 제9조 제(1)항, 제10조를 위반하는 경우 ‘작가’에게 그 의무의 이행 또는 위반의 금지를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다. 최고 후 2주일이 경과하여도 ‘작가’가 의무를 이행하거나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작사’는 본 계약을 서면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작가’가 제3조 제(7)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서면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 ‘제작사’는 “본건 각색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작가’는 “본건 각색 시나리오”를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제작사’는 ‘작가’에게 약정한 각색료 잔금, 크레딧,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제작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작가’는 ‘제작사’로부터 지급 받았던 각색료 및 이에 대한 지급 완료일까지 연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제작사’에게 반환해야 한다.
- (3) ‘작가’와 ‘제작사’는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권리의 귀속 및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서면 합의로 정한다.
- (4) 본 조의 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2 조 (손해배상)

- (1)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 (2) ‘작가’가 제3조 제(7)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법률상·사실상의 모든 책임은 ‘작가’에게 있고, 이로 인하여 ‘제작사’가 제3자로부터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청구를 당하거나 형사처벌, 행정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을 경우 ‘작가’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변호사 보수 등 법률 비용 포함)을 부담하며, 자료 제공, 진술, 증언 등 필요한 모든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13 조 (불가항력)

- (1) ‘제작사’와 ‘작가’는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련 법령의 개폐, 화재 기타 천재지변, 전쟁, 파업, 기타 각 당사자의 합리적인 지배를 넘어서는 불가항력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경우 ‘작가’는 각색료 등 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제작사’는 ‘작가’에게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집필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본건 각색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는 ‘제작사’에게 귀속된다.

제 14 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제작사’와 ‘작가’는 대한민국 법령 및 한국영화계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이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와 ‘작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법령을 그 준거법으로 하고,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한다.
- (3) ‘제작사’와 ‘작가’ 사이에 본 계약 또는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작가’는 ‘제작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외에, “본건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을 중지·제한할 수 있는 가처분신청, 침해정지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

제 15 조 (통지)

본 계약과 관련된 당사자에 대한 모든 통지, 동의, 요청, 합의 및 기타 통신은 이메일을 포함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아래 기재한 주소 또는 이메일로 전달된 의사표시만이 유효하다.

제작사에 대한 통지

(주 소)

(이메일)

작가에 대한 통지

(주 소)

(이메일)

제 16 조 (계약의 효력)

(1)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구두 또는 서면 합의는 본 계약 내용으로 대신한다.

(2) 모든 별첨, 부속합의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

(3) 본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쌍방이 기명날인 서면에 의하여만 변경할 수 있다.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제작사’와 ‘작가’가 서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 한다.

년 월 일

제작사 : 영 화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작 가 : 이 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Ⅲ. 표준시나리오계약서 해설서

주) 표준 시나리오 계약서는 제작사와 작가 간의 계약에 있어 작가의 저작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의무를 작가에게 부담시키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본 표준계약서보다 작가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제작사와 작가 간의 시나리오 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서> 해설

(1) 제3조 용어정의의 주요 내용 해설

○ 제3조 (1)항 2차 저작물 권리

(1) 2차 저작물 권리 : “본건 시나리오” 또는 “본건 영화”를 번역, 변형, 각색, 영상화, 공연(연극, 뮤지컬 등)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을 제작·이용할 수 있는 권리 및 이를 국내나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로 캐릭터(Character) 상품 사용권, Sponsor사용권(TV adaptations), 서적 및 기타 출판물 판매권, 영화의 국내·해외 리메이크 및 전/후편 저작물의 작성권, 국내외에서 공연 및 전시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게임판권, 기타 머천다이즈링 판권 등을 말한다.

-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은 작가가 독자적으로 완성한 시나리오의 영화화를 위한 판매 계약으로, 소설이나 웹툰 등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영화화 권리 양도 기간 중에도 작가가 제작사에 영화화를 위해 양도한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출판, TV방송물 제작 및 방영 등의 2차 저작물 권리 행사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2차 저작물 권리로 활용될 수 있는 저작물로 표준투자계약서와 달리 영화만이 아니라 본 계약의 대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정의하였음.

○ 제3조 (2)항 주 촬영의 기준

(2) 주 촬영 : 메인투자 계약,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스태프 고용 및 용역 계약, 배우 캐스팅 계약 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촬영을 의미한다.

-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하기 몇 개월 전에 사전적으로 일부 배우와 스태프만 결합된 상태에서 영화에 필요한 특정 계절을 배경으로 몇 일간만 일부 촬영(일종의 사전 촬영)하는 경우가 아니라, 메인투자계약, 스태프 고용 및 용역 계약, 배우 캐스팅 계약 등이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본격적으로 지속해서 촬영하는 것을 주 촬영이라고 정의한 것임.

○ 제3조 (6)항 작가의 수익배분 기준

(6) 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 : 메인투자사와 제작사 간의 메인투자계약에 약정한 “본건 영화”의 순이익 발생 시 제작사에게 지급되는 수익지분을 의미한다. 공동제작의 경우 공동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을 포함한다.

- 영화의 순이익 발생 시 계약 상대방인 제작사로부터 그 순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

는 권리인 작가의 수익지분은 영화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수익분배금을 포함한 전체 순이익이 아니라, 제작사가 메인투자사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제작사가 받게 되는 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작가가 계약을 한 제작사가 투자사(또는 다른 제작사)와 공동제작을 할 경우 공동 제작 계약에 따라 작가가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 당시 추산한 작가의 수익지분보다 분배받는 금액이 적지 않게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작가에게 제공되는 수익지분의 기준이 되는 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에 공동 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을 포함한 것임. 즉 공동제작을 할 경우 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은 작가와 계약한 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과 공동제작사의 수익지분율을 합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2) 제4조 권리 양도 주요 내용 해설

○ 제4조 (1)항~(4)항 권리 양도 범위 관련 조항

- (1) ‘작가’는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범위 내에서 “본건 시나리오”로 극장용 장편영화 1편(본 계약에서 “본건 영화”라 한다)을 제작하여, 전세계에 배급, 판매,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작사’에게 양도한다.
- (2) ‘제작사’가 “본건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년이다. 단, 본문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정한다.
- (3) ‘제작사’는 제(2)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작가’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되는 기간이나 기간 연장의 대가는 ‘제작사’와 ‘작가’가 별도로 서면 합의하여 정한다(이하, 제(2)항의 기간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까지 총칭하여 “영화화기간”이라 한다).
- (4) “본건 영화”의 언어는 [언어]로 한다. 다만, 다른 언어가 대사에 부분적으로 사용되거나, “본건 영화”를 다른 언어로 자막, 더빙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

- 작가와 제작사는 작가가 제작사에 양도하는 권리 범위로 영화화 권리 양도 기간과 제작되는 영화의 주 사용 언어를 계약 시에 합의하여 정해야 하고, 계약에 따라 정해진 영화화 기간 내에 약정한 주 사용 언어로 극장용 장편영화 1편을 제작하여 국내외에 배급, 판매,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제작사로 양도됨을 의미함.
- 작가가 제작사에게 영화화 권리를 양도하는 최초의 기간은 계약 시에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으나, 저작권법 제99조 제2항을 준용하여 양도기간의 상한선을 5년으로 한정하도록 한 것임.

- 또한 최초 영화화 양도 기간을 넘어 제작사가 추가로 영화화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구두나 대가 지불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연장되는 기간이나 연장의 대가를 작가와 별도의 서면 합의해야 함을 의미함.
- 작가의 저작권 양도로 실제 영화 제작 유무와 관계없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이 제작사에게 영구 귀속되는 영화계의 관행을 개선하여 작가의 저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제작사와 작가 상호간의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초 영화화 권리 양도 기간의 상호 합의를 통한 설정과 추가연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임.
- 연기자만이 아니라 감독을 포함한 영화인들의 중국이나 미국 등 해외 진출이 늘어나고 있고, 시나리오의 국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양도 계약하는 시나리오로 제작되는 영화의 주 사용 언어를 특정하도록 하였으며, 영화가 국내 상영 및 부가관권만이 아니라 해외 수출도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언어로 자막 또는 더빙은 가능하도록 한 것임.

○ 제4조 (5)항 계약 완료 시점의 영화 제작 진행에 따른 영화화 권리

(5) 영화화기간 내에 “본건 영화”의 주 촬영이 개시된 경우 영화화기간 이후라도 ‘제작사’는 촬영, 편집, 색보정, 음악, 음향 등 제작을 진행할 수 있고 제4조 제(1)항의 권리는 영화화기간 만료를 이유로 ‘작가’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 주 촬영의 개시는 주 촬영의 용어정의상 영화의 미완성 확률이 매우 적어진 상태를 의미하므로, 영화화 기간 내에 주 촬영의 개시된 경우 영화화 기간 만료 이후의 촬영 및 후반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작투자계약을 포함한 영화 제작과 관련된 다른 계약의 준수와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함. 이와 같은 이유로 영화화 기간 내에 주 촬영이 개시된 경우에는 영화화 기간 만료를 이유로 작가에게 영화화 권리가 반환되지 않도록 한 것임.

○ 제4조 (8)항 제작사의 영화화 권리 양도 관련 저작권 등록

(8) ‘작가’는 ‘제작사’에게 20()년 ()월 ()일까지 제(1)항의 권리 양도 등록 절차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하고, ‘제작사’는 저작권 양도 등록 시 본 조에서 정한 영화화기간 및 언어에 대한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함께 등록하여야 한다. “본건 시나리오”가 기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작사’가 요청하면 ‘작가’는 “본건 시나리오”의 저작권을 등록한다.

- 제작사가 제3자로부터 영화화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영화화 권리 양도와 관련한 사항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제작사가 저작권 양도 등록을 할 때에는 제4조 (2)항과 (4)항에서 작가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영화화 기간 및 언어

4. 제작사와 작가 간에 계약한 시나리오가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았는데, 동일한 내용의 영화가 제작될 경우 저작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화가 완성되더라도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제작사가 요청할 경우 작가는 계약 대상 시나리오를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 제6조 (1)항 영화화 권리 양도 대가의 지급

- 저작권 보장의 작품계약서의 성격으로 작품에 대한 올바른 시장가격 형성을 위해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서>의 양도 대가는 총액일시지불을 원칙으로 제시하였음.

- 일시불로 지불되는 각본료 총액은 제작사와 작가 간의 협상에 따라 결정하면 됨.

○ 제6조 (2)항 작가에게 제공되는 수익 지분 권리

- 작가가 영화화 권리 양도에 따른 대가는 (1)항의 일시불로 지급되는 고정 금액 이외, 계약한 시나리오를 기초로 하여 제작된 영화의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시나리오를 창작한 저작권자로서 받아야 하는 수익지분도 포함하도록 하였음. 즉 영화 제작 및 판매 과정에 소요된 총비용을 상회하여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영화의 저작권산권이 존속될 때까지 수익이 발생한 금액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배받을 수 있는 저작권자로서 작가의 권리인 수익지분을 보장하도록 한 것임.
- 작가가 받는 수익지분의 기준은 제3조의 용어정의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제작사 몫 수익지분율의 일정 비율이며, 계약 시에 제작사와 작가가 상호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음. 제작사가 저작권자인 시나리오 작가에게 제공해야 할 수익 지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서 조항으로 0%로 두거나 공란으로 두지 못하도록 하였음.

○ 제6조 (3)항 정산 및 수익분배금 지급 시기

(3) ‘제작사’는 메인투자사로부터 받은 “본건 영화”의 국내 극장 개봉 이후, “본건 영화”의 총수익, 순이익 발생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산 서류를 ‘작가’ 또는 ‘작가’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와 같은 정산기준일에 따라 제공해야 하며, 제(2)항에 약정한 수익지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작사’와 ‘작가’ 간의 정산기준일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작가’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제작사’는 사실상·법률상의 폐업, 해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메인투자사로 하여금 ‘작가’에게 본 항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1차 : “본건 영화”의 극장종영일로부터 90일 이내 정산.
- ② 2차~5차 : 연 4회, 매분기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일은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 ③ 6차~7차 : 연 2회, 반기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일은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 ④ 8차 이후 : 매년 1회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일은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 표준투자계약서와 연동하여 작가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지분과 관련된 정산 시기 및 지급시기를 제작사가 메인투자사로부터 정산 및 지급받는 시기의 1개월 후로 설정하였음. 예를 들어 표준투자계약서상 극장종영일로부터 60일 이내 메인투자사가 제작사에게 1차 정산을 하는 것을 고려하여 이로부터 1개월 이후인 90일 이내에 제작사가 작가에게 정산하도록 한 것임.
- 작가가 제작사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 정산 서류는 제작사가 별도로 가공한 정산 내역이 아니라 메인투자사로부터 받은 정산 정보 그 자체이어야 하며, 제작사를 통해 메인투자사로부터 받은 정산서류에 근거하여 제작사가 받은 수익분배금을 기준으로 제(2)항에 약정한 수익지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작가에게 정산기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수익지분으로 지급해야 함.
- 1차 정산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4회에 걸쳐 정산 및 수익분배금 지급을 해야 하고, 1차 정산기준일로부터 1년~2년에는 연 2회에 걸쳐 정산 및 수익분배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부분 영화와 관련된 수익의 90% 이상이 영화개봉일로부터 2~3년 이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1차 정산 기준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매년 1회씩 정산 및 수익분배금이 작가에게 제공되도록 한 것임.
- 저작권법상 제42조에 의해 영화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최초 상영일)부터 70년간 존속되며,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았을 경우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됨. 이에 따라 최초상영일로부터 70년간 영화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매

년 1회 이상 작가에게 수익에 대한 정산 및 수익 지분에 따른 분배금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작사의 폐업 또는 해산 등의 이유로 작가에게 수익 정산 및 분배금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관련된 의무를 메인투자사가 동일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제작사가 관련된 조치를 투자 계약 과정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제시하였음.

○ 제6조 (6)항 시나리오의 영화화 관련 제작사의 의무 및 권리

(6) ‘제작사’는 “본건 시나리오”를 극장용 영화로 제작, 배급, 광고, 홍보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의무가 없고, “본건 영화”에 관한 예산의 확정 및 변경, 제작비 집행, 감독, 스태프, 출연배우의 결정 등을 포함한 제작 진행에 관한 제반 의사결정 권한은 ‘제작사’에게 있다.

- 제작 투자, 감독 및 주연 배우 캐스팅의 어려움으로 영화화되지 않을 수도 있고, 제작이 되었으나 상영 여건에 따라 개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영화화 권리를 작가로부터 제작사가 영화화 기간 동안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극장용 영화로 제작, 배급하지 못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님. 다만, 제4조 (2)항에 정한 영화화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까지 제작을 못할 경우 작가에게 해당 권한이 반환됨.
- 영화화 권리를 작가가 제작사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출연배우의 캐스팅 등 제작에 관련된 전반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제작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함.

(4) 제7조 권리의 귀속 관련된 주요 조항 설명

○ 제7조 (1)항 영화화 권리를 제외한 시나리오 관련 작가의 저작재산권 행사

(1) ‘작가’는 영화화기간 중에도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제4조 제(1)항의 권리를 제외한 모든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제4조 제(1)항의 권리 외의 저작재산권의 경우, ‘제작사’는 ‘작가’와 별도의 서면 합의 및 대가 지불을 통해 그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양도를 받거나 홀드백 기간을 정하여 ‘작가’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제한할 수 있다.

- 본 계약은 작가가 완성한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4조 (2)항에 정한 영화화 양도 기간(제4조 (3)항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경우 해당 기간 포함)에 제4조 (4)항에 정한 언어로 제작되는 영화화 권리에 한정하여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저작재산권 일부 계약으로 제4조에 약정한 권리 이외 시나리오에 관련된 모든 저작재산권을 영화화 기간이라도 작가가 행사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영화 이외 작가가 완성한 시나리오를 개작한 소설이나 만화의 출판, TV

드라마의 제작 및 방영 등이 영화화 기간에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의 제작자와 영화화 계약을 통해 제4조 (4)항에서 약정한 주사용 언어 이외 다른 언어로 제작되는 영화화 권리 양도도 가능함.

- 계약 대상 시나리오를 개작한 2차 저작물이 영화보다 먼저 방영(또는 상영이나 출판) 되지 않도록 제작사가 작가의 관련된 권리를 제한하고자 한다면 작가와 별도의 서면 합의를 해야 하며 작가의 관련 권리를 제한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함.
- 소설이나 만화 등의 원작을 구매하여 영화화하는 경우 영화화 권리에 한정하기보다는 TV드라마를 포함한 영상화 권리를 구매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소설이나 만화 등 다른 저작물과 시나리오의 영화화 권리 양도계약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미디어 융합, OSMU(원소스 멀티유즈) 확대에 따른 작가의 원천콘텐츠의 저작권보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저작권법에 보장된 작가의 권리를 시나리오 계약에 반영함으로써 작가의 창작의욕과 창작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영화화 권리를 제외한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본 조항을 제시한 것임.

○ 제7조 (2)항과 (3)항 작가의 2차 저작물 권리

- (2) ‘제작사’는 “본건 영화”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의 전세계적으로 영구히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가 된다. 다만, ‘작가’의 2차 저작물 권리는 ‘작가’에게 유보된다.
- (3) ‘제작사’는 “본건 영화”의 2차 저작물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작가’와 협의를 거쳐 ‘작가’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불한 후 ‘작가’의 2차 저작물 권리를 양도 또는 이용허락 받아야 한다. 대가의 정도나 지급방식은 ‘제작사’와 ‘작가’가 서면 합의하여 정한다.
- (4) “본건 영화”가 “본건 시나리오”와 주요 인물묘사, 플롯의 전개, 주요 시퀀스의 사건, 씬 별 대사 및 지문 등이 다른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제작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작사’ 단독으로 “본건 영화”에 대한 2차 저작물 권리를 보유·행사할 수 있고 ‘작가’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

- 영화의 배급·상영 및 판매, 해외 수출 등 제작사의 수익창출 활동 보장과 영화 제작비 조달 및 투자 활동을 위해서는 제작사가 계약 대상 시나리오를 기초로 제작된 영화와 관한 저작재산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의 독점적 권리자로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같은 취지는 저작권법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조항에도 반영되어 있음.

- “본건 영화”는 “본건 시나리오”의 2차적 저작물로, 제작사가 “본건 영화”에서 새로이 창작된 것이 아닌 “본건 시나리오”에 있던 부분을 활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작자인 작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계약은 제7조 (1)항의 해설에 제시한 바와 같이 영화화 권리에 한정된 저작권 일부 양도 계약이므로, 작가의 2차 저작물 권리는 작가에게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임.
-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작가에게 유보된 2차 저작물 권리를 제작사가 행사하고자 할 경우 작가와 별도의 서면 합의와 대가 지불을 통한 이용허락 및 양도에 의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작가에게 영화화 권리를 구매한 시나리오와 영화의 주요 인물묘사, 플롯의 전개, 씬 별 대사 및 지분 등이 다르다는 사실을 제작사가 입증할 경우에는 제작사가 작가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제작사 단독으로 영화에 대한 2차 저작물 권리를 보유·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4) 제8조 크레딧 관련 주요 내용 해설

○ 제8조 (1)항~(3)항 크레딧 명기 방안

- (1) ‘작가’는 “본건 영화”의 모든 프린트 및 광고, 홍보물에 관례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각본 ○○○”라는 크레딧을 단독으로 명기할 권리를 가진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본건 시나리오”를 원안으로 하여 다른 작가와 시나리오 초고를 새로이 작성하는 내용의 각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시나리오”가 아닌 다른 작가의 시나리오 초고에 기반을 둔 영화가 제작되어 크레딧을 병기해야 하는 경우, 병기 여부나 그 순서는 ‘제작사’와 ‘작가’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작사’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다.
- (3) 제(2)항의 크레딧 병기 여부 및 순서와 관련하여, ‘작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작사’는 병기 대상자가 “본건 시나리오”에 기여한 창작적 표현의 분량, 위치,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방법(각본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 사본)과 함께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작가는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정신적 권리자로서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 유지권(제13조)을 가짐. 작가의 크레딧은 저작인격권의 표현으로 작가의 자긍심, 경력관리,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작가와 협의 없이 제작사(또는 투자사)에 의한 크레딧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표기가 이뤄지고 있고 작가의 크

레딧이 보장받지 못하거나 침해당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최소한의 장치로 크레딧에 대한 작가와의 협의, 크레딧 병기시의 원칙, 작가의 크레딧 삭제요청 등에 대한 조항을 제시하였음.

- 작가가 독자적으로 완성한 시나리오를 구매한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의 경우 제작사가 양도받은 시나리오를 다른 작가를 고용하여 수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각본계약서와 달리 작가 단독으로 각본 크레딧을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 제작사가 소재나 아이디어, 캐릭터 등 시나리오의 일부 요소에 가치와 매력을 느껴 작가에게 영화화 권리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에는 제작사가 다른 작가와 각본 계약을 체결하여 작가로부터 양도받은 시나리오를 원안으로 한 시나리오를 완전히 새로 집필해 영화를 제작하게 됨.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영화가 제작될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새로이 집필한 작가도 각본 작가로서 기여도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크레딧에 병기하는 것이 타당함. 이처럼 원안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영화화 권리를 양도한 작가와 영화의 기초가 되는 시나리오를 집필한 다른 작가 모두 각본 작가로서 역할과 기여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크레딧을 병기해야 할 경우에는 작가와 제작사 간에 협의를 거쳐야 하며, 다른 작가와의 크레딧 병기 여부 및 순서에 대해 제작사와 작가 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작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음.
- 다만 다른 작가와 크레딧의 병기 여부 및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병기대상인 다른 작가와의 각본 계약 체결 사실 입증만이 아니라 완성된 시나리오에서의 다른 작가의 기여도(분량 및 내용 등)를 제작사가 입증하도록 하였음.

○ 제8조 (4)항 작가의 크레딧 삭제 요청 시

(4) ‘작가’는 “본건 영화”에서 ‘작가’에 관한 크레딧을 삭제해 줄 것을 ‘제작사’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작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작가’에 의한 크레딧 삭제 요구는 본 계약에 따른 ‘작가’에 대한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시나리오에서 추구한 방향과 영화의 내용 및 주제 등의 차이, 작가 자신의 경력이 나 명예 등의 이유를 불문하고, 작가가 자신의 크레딧 삭제를 요청할 경우 제작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가의 크레딧 삭제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나, 작가의 크레딧 삭제 요구가 작가가 받기로 한 수익 지분을 포함한 보상을 제작사가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님. 즉 작가가 크레딧 삭제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작사는 작가에게 약속한 수익 지분 제공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의미함.

(5) 제9조 양도 금지 관련 주요 내용 해설

○ 제9조 작가의 사전 동의 없는 제작사의 제3자 양도 시 처리 방안

- (1) ‘제작사’는 ‘작가’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본 계약상의 지위,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사전 동의 없이 ‘제작사’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정한 ‘작가’에 대한 크레딧, 수익지분의 제공 또는 지급 의무가 제3자에 의하여 이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제3자가 본 계약에서 약정한 크레딧, 수익지분의 제공 또는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작사’는 ‘작가’에게 수익지분을 지급하여야 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상의 관련된 주요 사항을 제작사가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가의 사전 동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임을 제시한 것임.
- 이와 같은 원칙을 어기고, 작가의 사전 동의 없이 제작사가 제3자에게 관련 의무를 양도한 경우 반드시 영화화 권리 계약에서 약정한 작가에 대한 제작사의 의무(크레딧, 수익 지분 제공 및 지급)가 제3자와의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이행되도록 해야 하며, 제3자와 제작사의 계약에 반영되지 않아 작가에 대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작사는 작가에게 수익지분을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작가가 입은 물질적·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함.

(6) 제10조 비밀유지 의무 관련 주요 내용 해설

○ 제10조 (2)항 시나리오의 대중 공개 금지

- (2) ‘제작사’와 ‘작가’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건 시나리오”를 일반 대중에게 배포, 전시 등 공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배포, 전시 등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영화의 마케팅 차원에서 영화 개봉과 동시에(또는 이전, 개봉 후 며칠 내) 시나리오를 개작한 만화나 소설 등의 출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OSMU 전략을 적극 활용하는 디즈니의 극장용 애니메이션만이 아니라 국내 영화의 경우에도 있음. 이와 같은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례를 포함한 시나리오 내용의 공개는 제작사나 작가가 상호의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함.
- 제7조 (1)항에 따라 제작사가 작가의 2차 저작물 권리 등을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서면합의와 대가 지불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작가는 영화화 기간에도 제

작사에 양도한 시나리오를 개작한 TV방송물의 제작 및 방영, 소설 출판 등 2차 저작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제작사와 제4조 (4)항에 약정한 주사용 언어와 다른 언어로 된 영화화를 위한 계약도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영화화 권리 이외 작가의 시나리오에 대한 권리의 이용허락 및 양도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 TV방송물 제작사(또는 방송사) 등 계약 상대방에게 시나리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제7조 (1)항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시나리오 제공(또는 공개) 범위는 계약 대상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방을 통해 시나리오가 대중에게 유출 또는 공개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미함. 다만, 본 조항 취지상 ‘본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완성된 2차 저작물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본건 시나리오’ 자체가 공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7) 제13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관련 주요 내용 해설

○ 제13조 (3)항 영화의 제작·배급·상영 보장을 위한 내용

(3) ‘제작사’와 ‘작가’ 사이에 본 계약 또는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작가’는 ‘제작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외에, “본건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을 중지·제한할 수 있는 가처분신청, 침해정지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

- 영화의 제작·배급·상영의 중지나 제한을 목적으로 작가가 소송을 하여 제작(또는 상영)이 중지(또는 지연)되거나 제한될 경우 분쟁의 상대방인 제작사만이 아니라 영화 제작에 참여한 배우, 스태프, 메인투자·배급사 및 부분투자사 등에게도 분쟁의 책임을 함께 지게 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배급·상영과 관련하여 계약 또는 고용된 이들의 권리도 침해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제작사와 작가 간의 상대방에 대한 의무 불이행이나 계약사항 위반 등 그 사유를 불문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작가는 제작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외 계약 대상 시나리오에 기초한 영화의 제작·배급·상영을 중지하거나 제한하고자 가처분 신청, 침해정지 청구 등을 제기 하지 않는 것으로 작가의 법률행위를 제한하였음.

(1) 제2조 계약의 대상 해설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본건 시나리오”의 제목, 원안 작성자, 개요 등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서 말미에 “본건 시나리오” 집필의 기초가 되는 원안을 첨부하기로 한다. “본건 시나리오”의 범위에는 제4조 제(2)항에 명시한 모든 단계의 집필 결과물이 포함되고, 본 계약에서 “본건 시나리오”는 맥락에 따라 각 단계의 단독적인 집필 결과물만을 의미하거나 모든 단계의 집필 결과물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한다.

- ## (2) 제3조 용어 정의의 주요 내용 해설

(1) 원안 : “본건 시나리오” 집필의 기초가 되는 A4용지 10매 이상(200자 원고지

환산 시 60매 이상) 분량의 문서로, 영화의 장르, 기획의도, 주제, 시작·중간·결말로 이루어진 핵심 줄거리가 항목별로 서술되어 있고, 주요 등장인물, 주요 사건, 시공간적 배경이 드러나야 하며,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창작성이 있는 문서를 말한다.

(2) 트리트먼트 : 원안을 보다 구체화한 A4용지 20매 이상(200자 원고지 환산 시 120매 이상) 분량의 문서로, 단순한 스토리라인이 아닌 플롯의 전개가 이루어지고, 주요 등장인물의 묘사, 인물 간 관계와 갈등 구조가 드러나며, 주요 시퀀스의 사건과 시공간 배경이 서술되는 시나리오 이전 단계의 문서를 말한다.

(3) 시나리오 : A4 용지 50매 이상(200자 원고지 환산 시 300매 이상) 분량의 문서로, 반드시 대사와 지문으로 이루어진 씬 단위로 작성되어 영화 제작 및 촬영이 가능한, 완결된 형태와 구조의 대본을 뜻한다.

-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된 창작물인 점을 고려하여 원안의 주요 기준으로 A4용지 10매 이상의 문서인 점을 명시하였음. 제작사와 작가 간의 대화로 이해되는 아이디어나 이야기가 아니라 장르, 기획의도, 주제, 시작·중간·결말 등의 구조를 갖춘 핵심줄거리 등이 서술되어 있고 주요 등장인물, 주요 사건, 시공간 배경이 드러난 문서로 된 창작물일 경우 원안으로 인정됨.
- 원안을 보다 구체화한 문서인 트리트먼트와 트리트먼트를 보다 발전시킨 시나리오에 대한 요건을 용어 정의에 제시함으로써 전체 시나리오 집필 기간 내에 단계별 진행을 가능하도록 한 <표준 각본 계약서>의 방식에 맞게 활용될 수 있는 단계별 결과물의 기준도 명확하게 되어 단계별 진행 과정상의 작가와 제작사 간의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음.

○ 제3조 (8)항 작가의 수익배분 기준

(8) 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 : 메인투자사와 제작사 간의 메인투자계약에 약정한 “본건 영화”의 순이익 발생 시 제작사에게 지급되는 수익지분을 의미한다. 공동제작의 경우 공동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을 포함한다.

- 영화의 순이익 발생 시 계약 상대방인 제작사로부터 그 순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인 작가의 수익지분은 영화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수익분배금을 포함한 전체 순이익이 아니라, 제작사가 메인투자사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제작사가 받게 되는 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작가가 계약을 한 제작사가 투자사(또는 다른 제작사)와 공동제작을 할 경우 공동제작 계약에 따라 작가가 각본 계약 당시 추산한 작가의 수익지분보다 분배받는

금액이 적지 않게 감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작가에게 제공되는 수익지분의 기준이 되는 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에 공동 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을 포함하도록 한 것임. 즉 공동제작을 할 경우 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은 작가와 계약한 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과 공동제작사의 수익지분율을 합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3) 제4조 시나리오의 집필 관련 주요 내용 해설

○ 제4조 (1)항과 (2)항 시나리오 전체 집필 기간과 단계별 집필 기간 설정

- (1) ‘제작사’와 ‘작가’는 전체 시나리오 집필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단, ‘작가’와 ‘제작사’가 합의하여 시나리오 집필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아래 약정한 기간의 20%를 넘기지 않는다.

시나리오 집필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까지.

- (2) ‘작가’는 ‘제작사’의 요구에 부응하여 “본건 영화”의 예산과 규모에 적합한 형태로 제(1)항에서 정한 전체 집필기간 내에서 트리트먼트 단계부터 시나리오 3고 단계까지 집필을 완료하고, 상호 합의한 아래와 같은 일정에 맞추어 각 단계별 집필 결과물을 출력된 문서 또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제작사’에게 제출한다.

- ① 트리트먼트 :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 ② 시나리오 초고 :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 ③ 시나리오 2고 :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 ④ 시나리오 3고 :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 시나리오 집필 기간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작가에게 작품 활동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제약 또는 구속하는 것은 다른 작품을 집필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형태의 작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화 될 수 있음. 집필기간을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통 계약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작가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작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하는 목적도 있음.
- 전체 집필기간과 단계별 기간을 상호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가가 집필 기간 연장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면서도 작가의 다른 작품과 관련된 의사결정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장 가능범위를 전체 기간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였음. 예를 들어 전체 집필 기간이 1년일 경우 2.4개월(73일) 이내 범위

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5개월이면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전체 집필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필 단계를 트리트먼트, 시나리오 초고, 2고, 3고 등 4단계로 나누어 제작사와 작가가 상호 합의하여 단계별 집필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전체 집필 기간을 정하는데도 불구하고 4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집필 기간을 정하도록 한 것은 제10조 (2)항에 제시한 단계별 선 지불 후 작업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작가의 집필대가 체불문제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과 제작사가 작가의 집필 결과물을 보고 계약 지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개발 일정 및 비용을 절감시키고자 하는 것임.
- 집필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였으나, 트리트먼트를 작성하지 않고 원안에서 바로 시나리오 초고 집필로 넘어가는 작가도 있음. 이처럼 작가의 시나리오 집필 방식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작가와 제작사가 트리트먼트 단계를 생략하고 시나리오 초고 집필을 1단계 집필로 계약하는 것은 가능함. 단, 본 계약서의 단계별 계약 방식이 갖는 취지에 따라 시나리오 초고 집필을 1단계로 할 경우 집필 대가는 20%가 아니라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음.

○ 제4조 (3)항 단계별 집필 결과물 수령 후 계약 지속여부

(3) ‘제작사’는 ‘작가’로부터 각 단계별 집필 결과물을 수령한 후 [21]일 이내에 ‘작가’가 다음 단계 집필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진행하여야 할 집필 작업의 종류, 집필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작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작사’가 상호 합의에 따른 기간 연장 없이 위 기간 내에 결정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작가’에게 다음 단계 집필에 착수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작사’가 위 기간 내에 ‘작가’에게 다음 단계 집필에 착수하지 않을 것을 통보한 경우 제5조를 준용한다.

- 제작사가 각 단계별 집필 결과물을 수령하여 다음 단계 계약 진행 여부를 포함한 사항을 수령 후 21일 이내에 작가에게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통보할 것을 의무화 하였음. 수령 후 21일 이내에 제작사가 관련 사항을 작가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간주함.
- 제작사가 작가에게 다음 단계 집필에 착수하지 않을 것을 통보할 경우에는 시나리오 계약 중단으로 판단하여 제5조 시나리오 집필 중단에 따른 관련 내용을 준용하여 저작권 귀속 및 상호 간의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함.

(4) 제5조 시나리오 집필 중단 조항의 주요 내용 해설

○ 제5조 (1)항 계약 위반 없는 계약 중단 결정

(1) ‘제작사’와 ‘작가’는 제4조 제(1)항의 집필기간 중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신의 필요 및 판단에 의해 상대방에게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집필 중단을 통지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지를 수령하는 즉시 본 계약은 종료한다. 이 경우 권리의 귀속이나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은 본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작사와 작가는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되는 계약 사항을 상대방이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나 질병, 작품 집필 방향에 대한 의견 차이 등 자신의 필요 및 판단에 의해 시나리오 집필 계약 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즉 제작사만이 아니라 작가도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되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유가 없더라도 자신의 필요와 판단으로 계약 중단을 결정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이 중단될 경우 제5조 (2)항부터 (4)항에 제시한 바와 같이 계약 중단 시기에 따라 권리의 귀속 및 정산을 포함한 상대에 대한 의무가 달라짐.

○ 제5조 (2)항 트리트먼트 수령 전 계약 중단

(2) ‘제작사’ 트리트먼트 수령 전

- ① 원안 및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변동되지 않는다. 다만, 원안 작성자가 ‘작가’가 아닌 경우 ‘작가’는 “본건 시나리오” 중 원안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작가’가 집필 중단을 통지한 경우 ‘작가’는 기 수령한 집필료 및 이에 대한 지급 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 (0/율)%의 지연이자를 ‘제작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제작사’가 집필 중단을 통지한 경우에는 ‘작가’는 집필료 등 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③ ‘제작사’는 ‘작가’에게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집필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트리트먼트를 제작사가 수령하기 이전 단계에서는 제작사가 원안에서 변화된 결과물을 받아보지 못한 시점으로 원안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저작권을 포함한 권리 귀속 문제가 변화되지 않음. 다만 작가가 원안 작성자가 아닌 경우, 즉 제작사가 구입한 소설이나 만화를 원안으로 하거나 제작사 소속 직원의 업무상 저작물 원안인 경우에는 핵심줄거리, 기획의도, 주요 사건 및 주요 등장인물 등 원안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을 작가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 트리트먼트 수령 이전에 집필 계약 중단을 제작사가 결정한 경우에는 작가가 트리

트먼트 계약 단계에 선 지불받은 집필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나, 작가가 집필 중단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작사에게 선 지불받은 집필료와 집필료에 대한 지연이자(계약 시에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한 연이자율을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이자율로 환산하여 집필료를 곱한 금액)를 제작사에게 반환해야 하도록 하였음.

○ 제5조 (3)항 트리트먼트 수령 후 계약 중단

(3) ‘제작사’ 트리트먼트 수령 후

- ① 원안 및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원안 작성자인 ()에게 귀속된다. 다만, 원안 작성자가 ‘작가’로 ‘작가’가 집필 중단을 통지한 경우 ②호의 금원을 전부 상환할 때까지 ‘작가’는 ‘제작사’와 공동으로 그 권리를 보유하고 단독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② 원안 작성자가 ‘작가’로 ‘작가’가 집필 중단을 통지한 경우 ‘작가’는 기 수령한 집필료의 2배를 ‘제작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작가’는 집필료 등 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③ ‘제작사’는 ‘작가’에게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집필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원안을 구체화한 트리트먼트 수령 후는 작가의 창작 결과물로 트리트먼트가 제작사에 제출되었고, 제작사도 트리트먼트가 수령 후까지⁵⁾ 작가에게 전체 집필료의 일부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나리오 개발비용도 발생한 시기임.
- 원안을 트리트먼트로 구체화하였더라도 완성된 저작물인 시나리오가 아닌 점을 고려하여 제작사가 트리트먼트 수령 후의 저작권은 원안 작성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였음. 즉 제작사 원안(소설이나 웹툰 등 원저작물 원안 포함)이면 제작사로 귀속되고, 작가가 원안 작성자이면 작가에 귀속됨.
- 단, 작가 원안의 경우 집필중단 결정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작가의 저작권 단독 보유를 위한 집필료 반환의무 발생 여부가 달라짐. 제작사가 집필중단을 결정하면 집필료를 반환하지 않더라도 작가에게 이 시기까지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이 귀속되나, 작가가 집필중단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작사에게 받은 집필료의 2배를 제작사에게 반환해야만 독자적으로 저작권을 작가가 보유하며⁶⁾, 작가가

5) 트리트먼트 수령 후는 제작사가 트리트먼트를 수령한 후부터 시나리오 초고를 수령하기 이전까지임을 의미함. 제작사가 작가와 시나리오 초고 단계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여 2단계 집필료를 지불한 이후인 시나리오 초고 집필 중에 계약이 중단된 경우 트리트먼트 이후의 작가의 집필 결과물은 작가만 보유한 상태로 저작권 귀속의 대상 결과물은 제작사가 수령한 트리트먼트로 제한될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시나리오 초고 수령 이전까지와 트리트먼트 수령 후의 저작권 귀속과 정산 관련 의무를 동일선상에서 제시하였음.

6) 시나리오 초고 단계의 집필료까지 받은 이후 시나리오 초고 집필 중에 작가가 집필을 중단한 경우에는 트리트먼트 단계와 초고 단계에 받은 집필료의 합계 금액의 2배를 제작사에게 반환해야 단독으로 작가가 저작권을 보유할 수 있음.

제작사에게 받은 집필료의 2배 금액을 전부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작사와 작가가 공동으로 저작재산권을 보유함.

- 집필 중단 결정을 누가 했는가와 상관없이 트리트먼트 수령 후에 계약이 중단될 경우 제작사는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집필료(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 제5조 (4)항 시나리오 초고 후 계약 중단

(4) ‘제작사’ 시나리오 초고 수령 후

- ① 권리의 귀속에 관한 내용은 제8조가 적용된다.
- ② ‘작가’는 집필료 등 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 ③ ‘작가’가 집필 중단을 통지한 경우 ‘제작사’는 ‘작가’에게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집필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본건 영화”의 제작이 완료되어 개봉하더라도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약정한 크레딧과 수익지분을 ‘작가’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다.
- ④ ‘제작사’가 집필 중단을 통지한 경우 추후 “본건 영화”에 대한 메인투자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약정한 집필료 잔금을 메인투자계약에 따른 최초 투자금이 ‘제작사’에 입금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작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본건 영화”의 제작이 완료되어 개봉하는 경우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약정한 크레딧과 수익지분을 ‘작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본건 시나리오”와 “본건 영화”가 주요 인물묘사, 플롯의 전개, 주요 시퀀스의 사건, 씬 별 대사 및 지문 등이 다른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제작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수익지분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 시나리오 초고는 시나리오로서 형식과 내용을 일정 수준 갖춘 완성된 저작물인 점을 고려하여 권리 귀속에 관한 내용은 제8조 권리의 귀속 등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즉 작가는 초고까지 작성하고 제작사가 이를 수령한 이후에는 작가는 시나리오를 창작한 저작자로서 인정되며, 이를 기초로 제작된 영화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는 제작사에게 전세계적으로 영구히 귀속되고, 작가의 2차 저작물 권리는 작가에게 유보됨을 의미함.
- 영화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가 제작사에게 귀속되는 점(단, 작가의 2차 저작물 권리는 작가에게 유보)을 고려하여 시나리오 초고 수령 후 계약이 중단된 경우에는 집필 중단 주체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제작사로부터 받은 집필료, 진행경비 등 제반 금액을 작가가 반환할 의무는 없도록 하였음.
- 집필 중단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은 제작사가 작가에게 제공해야 하는 잔금, 크레딧, 수익 지분에 대한 의무의 준수 여부에 영향을 미침.
- 제작사가 시나리오 초고를 수령한 이후 작가가 집필 중단을 제작사에 통지하여 계

약이 중단된 경우 제작사는 다른 작가를 찾아 계약해야 하고, 새로 계약한 작가와 원안 및 초고까지 작성된 시나리오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내용에 대한 이해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해 함.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시나리오 초고를 수령한 이후 작가의 결정으로 계약이 중단된 경우 제작사가 저작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의 작가에 대한 잔금 지급 의무를 없도록 하였으며, 영화가 제작 완료되어 개봉하였더라도 작가와 약정한 크레딧과 수익 지분 제공 의무도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음.

- 제작사가 집필 중단을 결정한 경우에는 작가에 대한 잔금, 크레딧, 수익지분 제공 의무는 계약이 완료될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됨.
- 즉 전체 집필료 중 작가가 받지 못한 잔금은 제작사가 메인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제작사에 투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작가에게 지급해야 하며, 각본 작가로서 크레딧도 보장해야 함. 또한 작가가 집필한 시나리오와 제작된 영화와 주요 인물묘사, 플롯의 전개, 주요 시퀀스의 사건, 씬 별 대사 및 지문 등이 다른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제작사가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0조 (3)항에 약정한 수익지분도 제10조 (4)항에 제시된 정산 정보 제공과 함께 지급되어야 함.

○ 제5조 (5)항 기획개발 중단에 따른 조치

(5) 제3자와 체결한 기획개발계약의 종료 등으로 “본건 시나리오”와 관련한 기획개발 자체가 중단되어 집필 중단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작사’가 시나리오 초고를 수령하였더라도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안 작성자인 ‘작가’는 ‘제작사’에게 기 수령한 집필료 및 경비를 반환한 후 원안 및 집필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행사할 수 있다.

- 기획개발 투자계약의 종료, 제작사의 재정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기획개발 자체가 중단되어 제작사가 작가에게 집필 중단을 통지한 경우에는 시나리오 초고를 수령한 제작사가 해당 시나리오의 영화화가 어려운 상황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안 작성자가 작가인 경우 제작사로부터 작가가 받은 집필료 및 경비의 반환을 전제로 원안 및 집필 결과물인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작가가 보유·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임.

(5) 제7조 영화제작 여부에 관한 결정권 등의 주요 내용 해설

○ 제7조 (2)항 제작사의 영화 제작·배급 등의 의무

(2) ‘제작사’는 “본건 시나리오”를 극장용 영화로 제작, 배급, 광고, 홍보하거나 기

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의무가 없다.

- 제작 투자, 감독 및 주연 배우 캐스팅의 어려움으로 영화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제작이 되었으나 상영 여건에 따라 개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작사가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 등 제반권리를 보유하더라도 극장용 장편 영화로 제작, 배급하지 못한 책임 또는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님을 의미함.

(6) 제8조 권리의 귀속 등과 관련된 주요 내용 해설

- 제8조 (1)항과 (2)항 시나리오를 창작한 저작권자로서의 작가와 시나리오 및 영화와 관련된 제반 권리 보유자로서 제작사

- (1) ‘작가’는 “본건 시나리오”를 창작한 저작자로, 본 조에 정하는 권리의 귀속에 관한 내용이 위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 본 계약에서 특별히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안, “본건 시나리오” 및 “본건 영화”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는 ‘제작사’에게 전세계적으로 영구히 귀속된다. 다만, ‘작가’의 2차 저작물 권리는 ‘작가’에게 유보된다.

- 영화의 배급상영 및 판매, 해외 수출 등 제작사의 수익창출 활동 보장과 영화 제작비 조달 및 투자 활동을 위해서는 제작사가 계약 대상 시나리오와 이를 기초로 제작된 영화와 관한 저작재산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의 독점적 권리자로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같은 취지가 저작권법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조항에도 반영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8조 (2)항에 제시하였음.
- 이처럼 시나리오 및 영화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가 제작사에게 영구히 귀속되도록 하였으나, 작가는 계약 대상 시나리오를 창작한 저작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된다는 점을 제8조 (1)항에 제시한 것임.
- 저작권법 제45조 (2)항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 저작물 권리는 양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작가의 2차 저작물 권리는 작가에게 있도록 하였음.

- 제8조 (3)항~(5)항 작가의 2차 저작물 권리

- (3) ‘제작사’가 2차 저작물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작가’와 협의를 거쳐 ‘작가’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불한 후 필요한 권리를 양도 또는 이용허락 받아야 한다. 대가의 정도나 지급방식은 ‘제작사’와 ‘작가’가 서면 합의하여 정한다. 단, 소설, 웹툰 등 원저작물을 원안으로 한 경우에는 ‘제작사’와 원저작물 권리자

간의 관련 계약 내용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 (4) ‘작가’는 ‘제작사’의 동의 없이 자신의 2차 저작물 권리를 처분, 행사할 수 없다.
- (5) “본건 영화”가 “본건 시나리오”와 주요 인물묘사, 플롯의 전개, 주요 시퀀스의 사건, 씬 별 대사 및 지문 등이 다른 ‘새로운 창작물’이라는 점을 ‘제작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작사’는 단독으로 “본건 영화”에 대한 2차 저작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작가’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

-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면 특약과 대가 지불을 통해 작가의 2차 저작물 권리도 제작사가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음. 또한 표준투자계약서에서도 제작사가 별도의 서면합의와 대가지불을 통해 작가나 감독의 2차 저작물 권리를 양도받도록 되어 있으며, 작가나 감독의 2차 저작물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하기 위해 제작사가 지출한 비용은 순제작비에 포함시키는 대신에, 2차 저작물 권리와 관련된 수익은 총수익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작가에게 유보된 2차 저작물 권리를 제작사가 행사하고자 할 경우 작가와 별도의 서면 합의와 대가 지불을 통한 이용허락 및 양도에 의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소설이나 웹툰과 같은 원저작물을 원안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할 경우 2차 저작물 권리는 작가와의 계약만이 아니라 원저작물 작가와의 계약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 제작사와 작가 간의 2차 저작물 권리에 대한 서면 계약 시 원저작물 작가와의 계약 내용을 반영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3)항의 단서로 제시하였음.
- 작가의 계약대상 시나리오에 대한 2차 저작물 권리 행사는 제작사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4)항에 작가가 자신의 2차 저작물 권리를 처분 또는 행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작사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였음.
- 작가가 집필한 시나리오와 제작된 영화의 주요 인물묘사, 플롯의 전개, 씬 별 대사 및 지문 등이 다르다는 사실을 제작사가 입증할 경우에는 제작사가 작가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제작사 단독으로 영화에 대한 2차 저작물 권리를 보유·행사할 수 있도록 (5)항에 제시하였음.

○ 제8조 (6)항 다른 영화에 계약 대상 시나리오의 일부 이용에 따른 처리 방안

- (6)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본건 시나리오”를 극장용 영화로 제작하지 아니한 채 “본건 시나리오”에서 ‘작가’가 창작한 내용 중 일부 캐릭터나 에피소드만을 인용·변형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작가’의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한 영화는 “본건 영화”로 간주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지분, 크레딧을 지급하여야 한다.

- 시나리오 및 영화에 대한 제반 권리를 제작사에게 귀속되도록 (2)항에 명시하였으나, 계약 대상 시나리오를 극장용 영화로 제작하지 않는 대신에 작가가 창작한 내용 중 일부를 인용·변형 등의 방법으로 다른 영화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작가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작가의 사전 동의 없이 이처럼 작가의 창작 내용의 일부라도 이용한 영화는 계약 대상 시나리오를 기초로 제작된 영화로 간주하도록 한 것임. 즉 제작사는 작가에게 제공해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수익 지분, 크레딧)를 작가의 창작한 내용을 이용하여 제작된 다른 영화에도 반영하여 제공 또는 지급해야 함.

(7) 제9조 작가 원안 각본 계약의 권리 귀속 기간

○ 원안 작성자가 작가와 동일한 경우 적용되는 권리귀속 기간

- (2) ‘제작사’가 “본건 시나리오”의 저작재산권자가 되는 것은 “본건 시나리오”의 영화화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제작사’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산하여 ()년이 되는 시점까지 메인투자계약 체결 또는 주연배우의 캐스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에는 원안 작성자자인 ‘작가’에게 “본건 시나리오”의 저작재산권이 반환된다. 단, 본문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정한다.
- (3) ‘제작사’는 제(2)항 본문의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에 ‘작가’에게 “본건 시나리오”의 영화 제작을 위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되는 기간이나 기간 연장의 대가는 ‘제작사’와 ‘작가’가 별도로 서면 합의하여 정한다.

- <영화화 권리 양도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작가가 원안 작성자인 각본 계약의 경우 영화화를 위해 제작사에 권리가 양도되는 최초 기간은 계약 시에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으나, 저작권법 제99조 제2항을 준용하여 양도 기간의 상한선을 5년으로 한정하도록 하였음.
- 또한 최초 영화화 양도 기간을 넘어 제작사가 추가로 영화화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구두나 대가 지불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연장되는 기간이나 연장의 대가를 작가와 별도의 서면 합의해야 함을 의미함.
- 작가의 저작권 양도로 실제 영화 제작 유무와 관계없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이 제작사에게 영구 귀속되는 영화계의 관행을 개선하여 작가의 저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제작사와 작가 상호간의 분쟁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초 영화화 권리 양도 기간의 상호 합의를 통한 설정과 추가연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임.

(8) 제10조 시나리오 집필 및 저작권 양도의 대가 지급 관련 주요 내용 해설

○ 제10조 (1)항과 (2)항 시나리오 집필 대가의 지급 방식

(1) ‘제작사’는 ‘작가’에게 “본건 시나리오” 집필의 대가(이하 ‘집필료’라 한다)로 금
원 (₩ 원정)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제작사’는 제(1)항의 집필료를 다음과 같은 일정과 방법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되어야 할 세금을 공제한 후 ‘작가’에게 지급한다. 이때 트리트
먼트 단계의 집필료는 제(1)항의 집필료의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작가’의
집필 작업이 지연되어 각 단계별 작업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제작사’는 ‘작가’에
게 추가적인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 |
|-----------|-----|---------------------------|
| ① 트리트먼트 | : 금 | 원 (본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지급) |
| ② 시나리오 초고 | : 금 | 원 (집필 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지급) |
| ③ 시나리오 2고 | : 금 | 원 (집필 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지급) |
| ④ 시나리오 3고 | : 금 | 원 (집필 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지급) |

- 전체 시나리오 집필 대가의 총액을 정하고, 지급방식은 트리트먼트, 시나리오 초고, 2고, 3고 등 각 단계별로 선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단계 집필 때 전체 집필료 기준으로 2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한선을 설정하였음.
- 트리트먼트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작가의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 초고 집필 단계로 작업할 수 있도록 계약할 경우에는 트리트먼트 단계 집필료 20% 하한선과 시나리오 초고 집필료로 작가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이를 합산 금액으로 제작사가 작가에게 1단계 집필료로 지급하는 것이 4단계로 집필 과정을 구분하고 선 지불 후 작업하도록 본 각본 계약의 특성과 취지를 반영하는 방안일 것임.

○ 제10조 (3)항 작가에게 제공되는 수익지분 권리

(3) “본건 영화”의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작가’가 “본건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것에 대한 대가로 ‘제작사’는 제작사 몫의 수익지분율의 ()%를 ‘작가’에게 수익지분을 제공해야 하며, 작가에게 제공되는 수익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작가’ 또는 ‘작가’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지급한다. 단, ‘작가’에게 지급되는 본문의 수익지분율을 0%로 정하거나 공란으로 두어서는 아니된다.

- 작가가 제8조 (2)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대가로, 계약한 시나리오를 기초로 하여 제작된 영화의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시나리오를 창작한 저작권자로서 받아야 하는 수익지분도 포함하도록 하였음. 즉 영화 제작 및 판매 과정에 소요된

총비용을 상회하여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영화의 저작권재산권이 존속될 때까지 수익이 발생한 금액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배받을 수 있는 저작권자로서 작가의 권리인 수익지분을 보장하도록 한 것임.

- 작가가 받는 수익지분의 기준은 제3조의 용어정의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제작사 몫 수익지분율의 일정 비율이며, 계약 시에 제작사와 작가가 상호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음. 제작사가 저작권자인 시나리오 작가에게 제공해야 할 수익 지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서 조항으로 0%로 두거나 공란으로 두지 못하도록 하였음.

○ 제10조 (4)항 정산 및 수익분배금 지급 시기

- (4) ‘제작사’는 메인투자사로부터 받은 “본건 영화”의 국내 극장 개봉 이후, “본건 영화”의 총수익, 순이익 발생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산 서류를 ‘작가’ 또는 ‘작가’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아래와 같은 정산기준일에 따라 정산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본조 제(3)항에 약정한 수익지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작사’와 ‘작가’ 간의 정산기준일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작가’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제작사’는 사실상·법률상의 폐업, 해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메인투자사로 하여금 ‘작가’에게 본 항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1차 : “본건 영화”의 극장종영일로부터 90일 이내 정산.
 - ② 2차~5차 : 연 4회, 매분기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일은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 ③ 6차~7차 : 연 2회, 반기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일은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 ④ 8차 이후 : 매년 1회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일은 ‘작가’와 ‘제작사’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 표준투자계약서와 연동하여 작가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지분과 관련된 정산 시기 및 지급시기를 제작사가 메인투자사로부터 정산 및 지급받는 시기의 1개월 후로 설정하였음. 예를 들어 표준투자계약서상 극장종영일로부터 60일 이내 메인투자사가 제작사에게 1차 정산을 하는 것을 고려하여 이로부터 1개월 이후인 90일 이내에 제작사가 작가에게 1차 정산하도록 한 것임.
- 작가가 제작사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 정산 서류는 제작사가 별도로 가공한 정산 내역이 아니라 메인투자사로부터 받은 정산 정보 그 자체이어야 하며, 제작사를 통해 메인투자사로부터 받은 정산서류에 근거하여 제작사가 받은 수익분배금을 기준으로 제(3)항에 약정한 수익지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작가에게 정산기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수익지분으로 지급해야 함.

- 1차 정산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4회에 걸쳐 정산 및 수익분배금 지급을 해야 하고, 1차 정산기준일로부터 1년~2년에는 연 2회에 걸쳐 정산 및 수익분배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부분 영화와 관련된 수익의 90% 이상이 영화개봉일로부터 2~3년 이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1차 정산 기준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매년 1회씩 정산 및 수익분배금이 작가에게 제공되도록 한 것임.
- 저작권법상 제42조에 의해 영화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최초 상영일)부터 70년간 존속되며,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았을 경우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됨. 이에 따라 최초상영일로부터 70년간 영화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매년 1회 이상 작가에게 수익에 대한 정산 및 수익 지분에 따른 분배금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작사의 폐업 또는 해산 등의 이유로 작가에게 수익 정산 및 분배금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관련된 의무를 메인투자사가 동일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제작사가 관련된 조치를 투자계약 과정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제시하였음.

(9) 제11조 크레딧 관련 주요 내용 해설

○ 제11조 (2)항과 (3)항 다른 작가와의 크레딧 병기

- (2) ‘제작사’가 다른 작가와 본 계약에 준하는 작가 용역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본 계약을 체결하여 크레딧을 병기해야 하는 경우, 병기 여부나 그 순서는 ‘제작사’와 ‘작가’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작사’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다.
- (3) 제(2)항의 크레딧 병기 여부 및 순서와 관련하여 ‘작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작사’는 병기 대상자가 “본건 영화”에 기여한 창작적 표현의 분량, 위치,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방법(각본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 사본)과 함께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작가는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정신적 권리자로서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 유지권(제13조)을 가짐. 작가의 크레딧은 저작인격권의 표현으로 작가의 자긍심, 경력관리,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작가와 협의 없이 제작사(또는 투자사)에 의한 크레딧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표기가 이뤄지고 있고 작가의 크레딧이 보장받지 못하거나 침해당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최소한의 장치로 크레딧에 대한 작가와의 협의, 크레딧 병기시의 원칙, 작가의 크레딧 삭제요청 등에 대한 조항을 제시하였음.

- 작가가 시나리오 집필을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작사에서 영화의 흥행성 및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작가와 각본 계약을 체결하여 시나리오를 적지 않게 수정하는 경우가 있음. 이와 같이 다른 작가가 적지 않은 내용과 분량을 수정한 경우 수정한 작가도 각본 작가로서 기여도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크레딧에 병기하는 것이 타당함. 처음에 시나리오를 집필한 작가와 적지 않은 분량과 내용을 새로 작성한 다른 작가 모두 각본 작가로서 역할과 기여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크레딧을 병기해야 할 경우에는 작가와 제작사 간에 협의를 거쳐야 하며, 다른 작가와의 크레딧 병기 여부 및 순서에 대해 제작사와 작가 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작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음.
- 다만 작가와 다른 작가와 크레딧의 병기 여부 및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병기대상인 다른 작가와의 각본 계약 체결 사실 입증만이 아니라 완성된 시나리오에서의 다른 작가의 기여도(분량 및 내용 등)를 제작사가 입증하도록 하였음.

○ 제11조 (4)항 작가의 크레딧 삭제 요청 시

(4) ‘작가’는 “본건 영화”에서 ‘작가’에 관한 크레딧을 삭제해 줄 것을 ‘제작사’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작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작가’에 의한 크레딧의 삭제 요구는 본 계약에 따른 ‘작가’에 대한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시나리오에서 추구한 방향과 영화의 내용 및 주제 등의 차이, 작가 자신의 경력이나 명예 등의 이유를 불문하고, 작가가 자신의 크레딧 삭제를 요청할 경우 제작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가의 크레딧 삭제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나, 작가의 크레딧 삭제 요구가 작가가 받기로 한 수익 지분을 포함한 보상을 제작사가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님. 즉 작가가 크레딧 삭제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작사는 작가에게 약속한 수익 지분 제공 및 지급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의미함.

(10) 제12조 위임 및 양도 관련 주요 내용 해설

○ 제12조 (3)항 작가 사전 동의 없이 저작재산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사전 동의 없이 ‘제작사’가 본 계약상의 의무 또는 “본건 시나리오”의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정한 ‘작가’에 대한 잔금, 크레딧, 수익지분의 제공 또는 지급 의무가 제3자에 의하여 이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제3자에 의하여 “본건 영화”가 제작되어 개봉하였음에도 제3자가 본 계약에서 약정한 잔금, 크레딧, 수익지

분의 제공 또는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작사’는 ‘작가’에게 잔금 및 수익지분을 지급하여야 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작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제작사의 계약상의 지위,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하거나 저작재산권을 양도, 담보 제공 등 처분할 수 없도록 한 본조 제(2)항과 달리, 제작사의 본 계약상의 의무 또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 계약에 작가와 체결한 계약상의 의무(잔금, 크레딧, 수익 지분의 제공 또는 지급 의무)가 반영되어 제3자에게 이행하도록 할 의무가 제작사에 있음을 의미함.
- 제작사로부터 저작재산권 등을 양도받은 제3자가 제작사와 작가 간의 계약에서 약정한 잔금, 크레딧, 수익 지분의 제공 및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가와 계약을 체결한 제작사가 잔금 및 수익 지분을 지급하여야 하며, 크레딧 등을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작가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를 지도록 하였음.

(11) 제13조 비밀유지 의무 관련 주요 내용 해설

○ 제13조 (2)항 시나리오의 대중 공개 금지

(2) ‘작가’는 ‘제작사’의 동의 없이 “본건 시나리오”를 일반 대중에게 배포, 전시 등 공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배포, 전시 등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 (4)항에 따라 제작사의 동의를 얻을 경우 작가는 자신의 2차 저작물 권리를 처분하거나 행사할 수 있음. 제작사의 동의를 얻어 2차 저작물 권리를 행사할 경우, 즉 TV방송물 제작사(또는 방송사) 등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에게 시나리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시나리오 제공(또는 공개) 범위는 계약 대상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계약 대상자를 통해 시나리오 내용이 대중에게 유출 또는 공개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함을 의미함.

(12) 제17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관련 주요 내용 해설

○ 제17조 (3)항 영화의 제작·배급·상영 보장을 위한 내용

(3) ‘제작사’와 ‘작가’ 사이에 본 계약 또는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작가’는 ‘제작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외에, “본건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을 중지·제한할 수 있는 가처분신청, 침해정지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

- 영화의 제작·배급·상영의 중지나 제한을 목적으로 작가가 소송을 하여 제작(또는 상영)이 중지(또는 지연)되거나 제한될 경우 분쟁의 상대방인 제작사만이 아니라 영화 제작에 참여한 배우, 스태프, 메인투자·배급사 및 부분투자사 등에게도 분쟁의 책임을 함께 지게 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배급·상영과 관련하여 계약 또는 고용된 이들의 권리도 침해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제작사와 작가 간의 상대방에 대한 의무 불이행이나 계약사항 위반 등 그 사유를 불문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작가는 제작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외 계약 대상 시나리오에 기초한 영화의 제작·배급·상영을 중지하거나 제한하고자 가처분 신청, 침해정지 청구 등을 제기 하지 않는 것으로 작가의 법률행위를 제한하였음.

3. <각색계약서> 해설

(1) 제2조 계약 대상 관련 주요 내용 해설

○ 제2조 (1)항 계약 대상 시나리오의 명확화

(1) 본 계약에 따른 각색의 대상이 되는 시나리오의 제목, 각본작가 등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서 말미에 각색의 대상이 되는 시나리오(이하 “원 시나리오”라 한다) 첨부하기로 한다.

① 제 목 :

② 각본작가 :

③ 형 태 : 시나리오

(2) “본건 각색 시나리오”의 범위에는 제3조 제(2)항에 명시한 모든 단계의 각색 결과물이 포함되고, 본 계약에서 “본건 각색 시나리오”는 맥락에 따라 각 단계의 단독적인 각색 결과물만을 의미하거나 모든 단계의 각색 결과물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한다.

- 각색 대상이 되는 작품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줄임과 동시에 크레딧 정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계약 대상에 시나리오 제목, 각본 작가를 명기하도록 하였으며, 원 시나리오를 첨부하도록 하였음.

- 단계별로 계약이 진행되는 점과 원 시나리오를 수정한 결과물인 점을 고려하여 각색 계약에서 사용되는 각색 시나리오의 의미와 범위를 정의한 것임.

(2) 제3조 시나리오 각색 관련 주요 내용 해설

○ 제3조 (1)항과 (2)항 시나리오 각색 기간

(1) ‘제작사’와 ‘작가’는 전체 시나리오 각색기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단, ‘작가’와 ‘제작사’가 합의하여 시나리오 각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아래 약정한 기간의 20%를 넘기지 않는다.

시나리오 각색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까지.

(2) ‘작가’는 ‘제작사’의 요구에 부응하여 “본건 각색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최초 제작되는 극장용 영화(이하 “본건 영화”라 한다)의 예산과 규모에 적합한 형태로 제(1)항에서 정한 전체 각색기간 내에서, 상호 합의한 아래와 같은 일정에

맞추어 각 단계별로 각색을 완료하고, 각 단계별 각색 결과물을 출력된 문서 또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제작사’에게 제출한다.

① 시나리오 각색 1고 :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 시나리오 각색 2고 :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 각색 작업기간을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통 계약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작가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작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하는 목적도 있음.
- 전체 각색 작업기간과 단계별 기간을 상호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가가 각색 작업기간 연장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면서도 작가의 다른 작품과 관련된 의사결정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장 가능범위를 전체 기간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였음.

○ 제3조 (3)항 단계별 각색 결과물 수령 후 계약 지속여부

(3) ‘제작사’는 ‘작가’로부터 각 단계별 각색 결과물을 수령한 후 [21]일 이내에 ‘작가’가 다음 단계 각색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진행하여야 할 각색 작업의 종류, 각색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작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작사’가 상호 합의에 따른 기간 연장 없이 위 기간 내에 결정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작가’에게 다음 단계 각색에 착수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작사가 각 단계별 각색 결과물을 수령하여 다음 단계 계약 진행 여부를 포함한 사항을 수령 후 21일 이내에 작가에게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였음. 수령 후 21일 이내에 제작사가 관련 사항을 작가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간주함.

○ 제3조 (4)항과 (5)항 1단계 각색 결과물 수령 후 계약 중단

(4) ‘제작사’가 제(3)항에 따라 ‘작가’에게 다음 단계 각색에 착수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거나, 제(1)항의 각색기간 중 ‘작가’가 본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제작사’의 필요나 사정에 의해 각색 중단을 통지하는 경우 ‘작가’가 그 통보·통지를 수령하는 즉시 본 계약은 종료한다. 이 경우 ‘작가’는 각색료 등 기 수령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본건 각색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제작사’에게 귀속된다.

(5) ‘제작사’가 시나리오 각색 1고 수령 후 시나리오의 각색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게 될 경우 ‘작가’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본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 제작사가 각색 1고를 수령한 후 작가에게 다음 단계 각색에 착수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거나 제작사의 필요나 사정에 의해 계약이 중단된 경우 작가는 제작사로부터 받은 각색 대가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각색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제작사가도 보유하지만, 1단계 각색 작업 이후 각색 작가의 추가적인 각색 작업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2단계 각색 작업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없도록 한 것임⁷⁾.
- 단 (5)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작사가 시나리오 각색 1고 수령 후 시나리오의 각색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각색 작가가 계약에 상정한 각색 용역 제공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작가에게 잔금을 지급해야 함.

(3) 제5조 영화제작 여부에 관한 결정권 관련 주요 내용 해설

○ 제5조 (2)항 제작사의 영화 제작·배급 등의 의무

(2) ‘제작사’는 “본건 각색 시나리오”를 극장용 영화로 제작, 배급, 광고, 홍보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의무가 없다.

- 제작 투자, 감독 및 주연 배우 캐스팅의 어려움으로 영화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제작이 되었으나 상영 여건에 따라 개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작사가 각색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권 등 제반권리를 보유하더라도 극장용 장편 영화로 제작, 배급하지 못한 책임 또는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님을 의미함.

(4) 제7조 시나리오 각색 대가 및 인센티브 관련 주요 내용 해설

○ 제7조 (1)항과 (2)항 시나리오 각색 작업 대가의 지급 방식

(1) ‘제작사’는 ‘작가’에게 시나리오 각색 작업의 대가(본 계약에서 ‘각색료’라 한다)로 금 원 (₩ 원정)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제작사’는 제(1)항의 각색료를 다음과 같은 일정과 방법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되어야 할 세금을 공제한 후 ‘작가’에게 지급한다. 이때 각색 1고 단계의 각색료는 제(1)항의 각색료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작가’의 작업이

7) 제작사와 각색 작가가 상호 합의하여 전체 각색 기간을 정하고 전체 각색 기간 범위에서 두 단계로 나누어 선 지급 후 작업 형태로 계약이 진행되는 형태로 각색계약서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각색 계약은 고용 계약이 아니라 시나리오 수정을 전제로 한 용역 계약이고, 작가에게 단계별로 제작사가 선 지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단계 각색 작업이 들어가기 전의 계약이 중단 또는 종료된 것으로 2단계의 각색 대가 지불 의무를 제작사가 지지 않아도 되는 것임.

지연되어 각 단계별 작업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제작사’는 ‘작가’에게 추가적인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각색 1고 : 금 원 (본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지급)

② 각색 2고 : 금 원 (각색 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지급)

- 전체 시나리오 각색 작업 대가의 총액을 정하고, 지급방식은 각색 1고, 2고 등 단계별로 선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단계 각색 1고 작업 때 전체 각색료 기준으로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한선을 설정하였음.

○ 제7조 (3)항 인센티브 지급 관련 내용

(3) 본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제3조 제(4)항에 따라 종료되지 않고, ‘작가’가 본 계약에 따른 각색 용역 제공을 완료한 것을 조건으로, ‘제작사’가 ‘작가’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 금액 및 지급방식은 별도 서면 합의로 정한다.

- 각색은 시나리오를 새로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시나리오를 수정하는 기술적 작성이라는 영화계의 평가 및 인식을 반영하여 수익 지분이 아니라 성과급 형태의 인센티브 금액 및 지급 방식을 별도 서면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각색 작업이 각본 집필보다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창작성이 적을 수는 있으나, 저작물로 인정되는 각본 작가의 시나리오의 완성도를 향상시켜 흥행이나 작품성 측면의 기여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각색 작가의 창작 의지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음.

(5) 제8조 크레딧 관련 주요 내용 해설

○ 제8조 (2)항과 (3)항 다른 각색 작가와의 크레딧 병기

(2) ‘제작사’가 다른 작가와 각색 계약을 체결하여 크레딧을 병기해야 하는 경우 병기 여부나 그 순서는 ‘제작사’와 ‘작가’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작사’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다.

(3) 크레딧 병기 여부 및 순서와 관련하여 ‘작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작사’는 병기 대상자가 “본건 영화”에 기여한 창작적 표현의 분량, 위치,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방법(각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 사본)과 함께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작가는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정신적 권리자로서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 유지권(제13조)을 가짐.

작가의 크레딧은 저작인격권의 표현으로 작가의 자긍심, 경력관리,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작가와 협의 없이 제작사(또는 투자사)에 의한 크레딧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표기가 이뤄지고 있고 작가의 크레딧이 보장받지 못하거나 침해당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최소한의 장치로 크레딧에 대한 작가와의 협의, 크레딧 병기시의 원칙, 작가의 크레딧 삭제요청 등에 대한 조항을 제시하였음.

- 각색 작가와 다른 각색 작가와 크레딧의 병기 여부 및 순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병기대상인 다른 각색 작가와의 각본 계약 체결 사실 입증만이 아니라 완성된 각색 시나리오에서의 다른 각색 작가의 기여도(분량 및 내용 등)를 제작사가 입증하도록 하였음.

(6) 제9조 위임 및 양도 관련 주요 내용 해설

○ 제9조 (3)항 작가 사전 동의 없이 저작재산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사전 동의 없이 ‘제작사’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작사’는 본 계약에서 정한 ‘작가’에 대한 잔금, 크레딧, 인센티브의 제공 또는 지급 의무가 제3자에 의하여 이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제3자가 본 계약에서 약정한 잔금, 크레딧, 인센티브의 제공 또는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작사’는 ‘작가’에게 잔금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작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제작사의 계약상의 지위,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하거나 저작재산권을 양도, 담보 제공 등 처분할 수 없도록 한 본조 제(2)항과 달리, 제작사의 본 계약상의 의무 또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 계약에 작가와 체결한 계약상의 의무(잔금, 크레딧, 인센티브의 제공 또는 지급 의무)가 반영되어 제3자에게 이행하도록 할 의무가 제작사에 있음을 의미함.
- 제작사로부터 저작재산권 등을 양도받은 제3자가 제작사와 작가 간의 계약에서 약정한 잔금, 크레딧, 인센티브의 제공 및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작가와 계약을 체결한 제작사가 잔금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하며, 크레딧 등을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작가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를 지도록 하였음.

(7) 제11조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주요 내용 해설

○ 제11조 (1)항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

(1) ‘작가’는 ‘제작사’가 제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각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 제(6)항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작사’에게 그 의무의 이행 또는 위반의 금지를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다. 최고 후 2주일이 경과하여도 ‘제작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작가’는 본 계약을 서면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작가’는 그때까지 이미 지급 받은 각색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건 각색 시나리오” 중 “원 시나리오”에 존재하지 않았던 ‘작가’가 각색 과정에서 창작한 부분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제작사’는 “본건 각색 시나리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작사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각색 작가에게 시나리오 전체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각본 작가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작사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 될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각색 작가가 저작재산권을 단독으로 보유하도록 하였음. 즉 각색 과정에서 작가가 창작한 부분에 대한 저작재산권만 단독으로 보유하게 함으로써 제작사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작성한 각색 시나리오를 제작사가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하였음.

(8) 제14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관련 주요 내용 해설

○ 제14조 (3)항 영화의 제작·배급·상영 보장을 위한 내용

(3) ‘제작사’와 ‘작가’ 사이에 본 계약 또는 “본건 영화”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를 불문하고, ‘작가’는 ‘제작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외에, “본건 영화”의 제작, 배급, 상영을 중지·제한할 수 있는 가처분신청, 침해정지청구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

- 영화의 제작·배급·상영의 중지나 제한을 목적으로 작가가 소송을 하여 제작(또는 상영)이 중지(또는 지연)되거나 제한될 경우 분쟁의 상대방인 제작사만이 아니라 영화 제작에 참여한 배우, 스태프, 메인투자배급사 및 부분투자사 등에게도 분쟁의 책임을 함께 지게 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배급·상영과 관련되어 계약 또는 고용된 이들의 권리도 침해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이유로, 제작사와 작가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작가는 제작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외 계약 대상 시나리오에 기초한 영화의 제작·배급·상영을 중지하거나 제한하고자 가처분 신청, 침해정지 청구 등을 제기 하지 않는 것으로 작가의 법률행위를 제한하였음.